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현재와 미래, 각각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장편 스토리

오늘의 전개와  
내일의 클라이맥스  
언젠가의 엔딩 크레딧까지도

당신의 매 순간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함께하겠습니다



# The·K





# CONTENTS

2018 OCTOBER VOL.14



4

**여는 글**  
우리 이미 누군가의 별

6

**Essay**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권희린** 서울 장충고 교사

8

**Inside Out**  
오늘 점심시간엔 무얼 할까요?

10

**Interview**  
열정으로 매일 진보하는 이 시대의 패션 멘토  
**간호섭**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16

**Interview**  
집으로 가는 길  
**엄기섭** 강원 삼척 소달초 교사

20

**아름다운 동행**  
고마워, 사랑해, 함께여서 행복해  
**문세진**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  
**오현정** 서울 신북초 교사

28

**먼 나라 나눔 편지**  
중앙아시아의 진주, 우즈베키스탄!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글로벌협력의료진 한의사

32

**트렌드 Go Go**  
의미를 찾다 지치느니, 무의미의 재미를 찾겠어  
- 무민 세대

34

**행복 만들기**  
바람을 가르다, 물 위의 인생을 즐긴다  
- 교원수상스키 동호회

38

**네오필리아**  
가을에 물들다, 와인에 빠지다

40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레이카비크**, 그 생명의 춤과 노래

46

**아는 공간**  
북향에 터를 잡겠소  
- 심우장

50

**재테크 팩토리**  
핀테크 앱에서 찾는 토막 재테크 습관

52

**The-K Focus ❶**  
서울에서 만난 파리의 밤, ONE NIGHT IN PARIS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조수미 파크콘서트

56

**The-K Focus ❷**  
내 통장을 챙기자, 내 건강을 돌보자  
2030 셀프케어 프로젝트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10월 즉석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뜨거운 안녕

# The-K

VOL.14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b>발행인</b>	문용린
<b>발행처</b>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b>발행일</b>	2018년 10월 1일
<b>편집</b>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정라희 엄용선
교열	박혜경
<b>디자인</b>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b>사진</b>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b>법률 자문</b>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b>한국교직원공제회</b>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 우린 이미 누군가의 별

숨을 크게 들이켜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가득 잡니다.  
 공기가 바뀌고 하늘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옷이 달라지듯 우리 일상도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거울 앞에는 웃는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쳐야 할 숙제를 끝내지 못하고  
 새로운 시작에 다시 겁을 먹고  
 걱정만 하다가 밤잠을 설치거나  
 너무 많은 일에 조금은 지쳐 있던 지난날의 모습을 담은 채.

다짐한 모든 것이 허투루 돌아갔던  
 지나온 어제  
 어쩌면 가장 힘든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홀연 나에게 묻습니다.  
 “그리 힘들던 어제마저 그리울 날이 올까요?”  
 다시금 나에게 답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을 정면으로 마주하자고.”

다시 한 발 내딛는 길에 서 있는 오늘  
 또다시 거울을 마주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웃음,  
 오늘의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린 이미 누군가의 별이니까요.  
 이미 당신은 빛나고 있으니까요.



#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 나만의 행복을 위한 소비 라이프

글 권희린(서울 장충고 교사)

아침에 내리는 커피 향에 행복을 느끼거나 편한 잠옷 차림으로 누워 만화책을 읽거나 주말 내내 밀린 드라마를 보는 것. 혹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기 위해 음반을 사 모으거나 자고 있는 아기의 발바닥에 뽀뽀하고는 지그시 얼굴을 바라보는 것.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 2018년의 단어 '소확행(小確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지만, 무려 30년 전에 나온 말이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모음집 <랑겔한스섬의 오후(ランゲルハンス島の午後)>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나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돼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수필집이 1986년 출판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는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 틀림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커피 향에 행복을 느끼려면 커피 머신이 있거나 그도 아니면 인스턴트커피라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갓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으려면 가까운 베이커리부터 찾아야겠지. 가수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음반을 사야 할 것이고, 누워서 만화책이라도 볼라치면 만화방에 가든가 만화책을 사든가 해야 한다. 결국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는 '소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

작년 즈음부터 나를 위한 꽃 정기 구독을 시작했다. <좋은 생각> 같은 정기 간행물은 구독해봤지만 꽃 정기 구독은 처음이었다. 꽃 하면 특별한 날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의 대명사처럼 여겼는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꽃이라니... 꽤 사치스럽고 허영처럼 느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꽃이 처음 배달된 날 느낀 감정을 잊지 못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높아지며 나의 일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종 편의점에 들러 '네 캔에 만원' 할인 판매하는 맥주를 사 가지고 온다. 지난달에 한, 욕망이 가득했던 스무디 다이어트는 잊었다. 여자의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라는데 하루쯤 숙제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니다. 내 요즘 좌우명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다. 맥주 한 캔 마시는 데 자기합리화 한번 거창하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육아 퇴근 후에 거실에 앉아 맥주 한 캔을 탄다.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는 소리. 오늘 나를 처음 위로해준 건 맥주 캔 따는 소리였다.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라며 우울한 감상에 빠지기도 한다. 이 외중에 꽤 힘들었던 하루의 끝에 기울이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은 하루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같았다.

어른들은 "아껴야 잘산다"며 절약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소비. 이 소비를 하나씩 늘려가는 삶이란 그저 아끼기만 하는 삶보다 훨씬 풍요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삶이야말로 잘사는 것(Well-being)이라 믿는다. 물론 정해진 예산과 욕구의 괴리감은 갈수록 멀어지고, 집에는 '플라잉타이거 코펜하겐'에서 산 귀여운 쓰레기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는 어제보다 좀 더 행복한 오늘을 위해 쇼핑 요정의 본분을 다하고 싶다.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비를 찾아서.

권희린 서울 장충고 교사  
티처빌에서 까칠한 권쌤의 비속어 수업이야기를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8급 언어> <중학생활대작전 D-1> <인생독학> <우물쭈물 서른, 대책 없이 어른> <도서관 여행>이 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위해 아낌없이 상상한다.





# 직장인에게 한없이 소중한 시간 오늘 점심시간엔 무얼 할까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직장 터. 그곳에서 잠시나마 숨 돌릴 시간은 당연히 점심시간이겠지요. 점심시간은 어떤 이에겐 메뉴 선택 고민에 열중하는 시간일지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활동을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무탈하길 바라며 점심시간을 가집니다. 공제회원이 생각하는 '점심시간'을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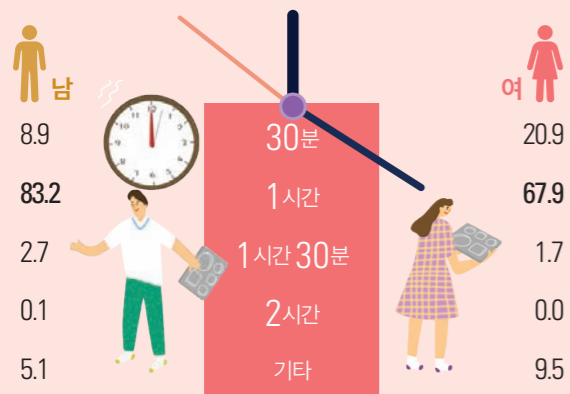


기간 2018년 8월 31일 ~ 9월 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44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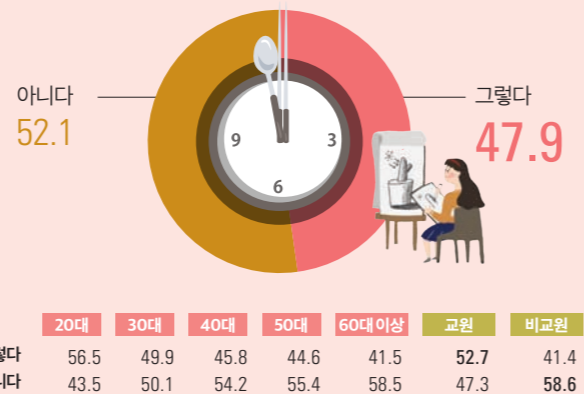
성별	남성	31.1
	여성	68.9
연령	20대	11.9
	30대	32.8
	40대	29.7
	50대	20.4
	60대 이상	5.2
직업	교원	57.9
	비교원	42.1
	유치원	3.0
	초등학교	28.8
근무하는 직장	중학교	15.7
	고등학교	16.9
	대학교(병원)	27.3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5.8
	기타	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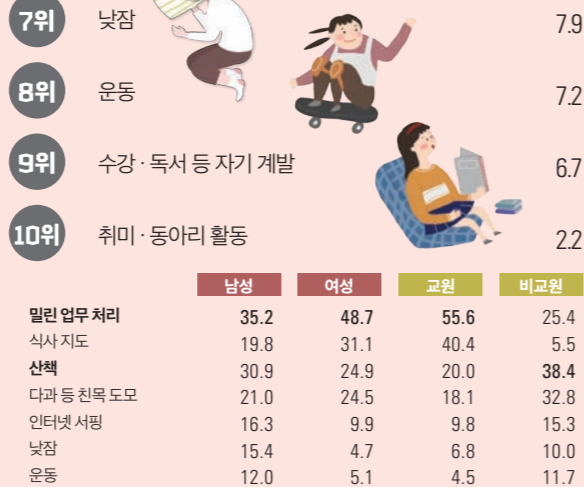
## Q. 귀하의 직장에서 점심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Q. 점심시간에 식사 외 다른 활동을 하니까?



## Q. 점심시간 동안 식사 외 무엇을 하니까? (최대 2개,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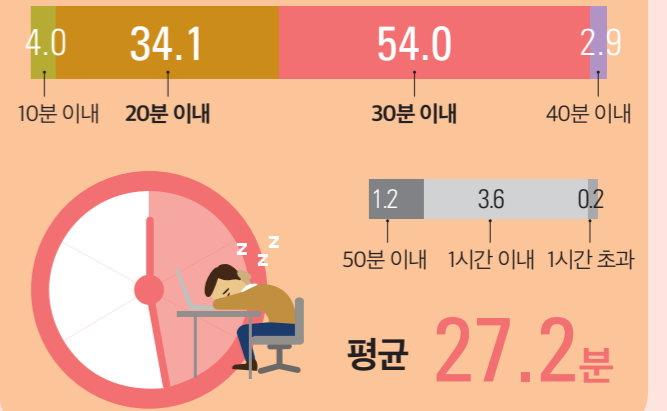
(단위: %)

## Q. 직장에서 낮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76.9	68.6	60.8	56.7	53.0
23.1	31.4	39.2	43.3	47.0

## Q. 낮잠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주관식)



## Q. 점심 식사를 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 Q. 점심 장소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1.2	37.6	43.4	53.0	51.7
25.9	27.5	26.7	23.9	25.6
10.1	9.1	5.8	3.8	1.3
4.5	4.7	4.6	4.9	9.4
6.2	5.2	2.4	0.7	0.4
3.5	2.9	3.2	2.8	1.7
3.2	2.3	2.0	0.8	0.4
0.2	0.5	0.9	1.0	3.4
0.4	0.3	0.1	0.1	0.0
14.9	10.0	11.0	9.0	6.0

## Q. 점심 식사 가격은 평균 얼마입니까? (주관식)

4688.9원 ₩

## Q. 여러 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 합니까?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1.0	64.3	72.0	69.5	58.7	44.9	42.7
25.2	20.5	8.4	16.6	24.9	30.7	35.5
16.8	8.1	10.1	8.5	10.1	15.2	12.8
7.0	7.2	9.5	5.4	6.2	9.2	9.0

## Q. 점심 식사로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열정으로 매일 진보하는 이 시대의 패션 멘토

그저 옷이 아니다. 패션이다. 패션은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언어이자, 시대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지표다. 사람들의 개성은 저마다 다르고, 유행은 계절처럼 변화한다. 그렇기에 '패션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능할 수는 있다. 경계를 넘는 다양한 도전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가는 간호섭 교수를 예시로.

글 정리희 사진 한상무  
장소 협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간호섭**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Kan<sup>D</sup>  
Hosup*





**그를 뛰게 한 패션이라는 동력**

하루가 부족하다. 플래너에 빼곡하게 기록한 일정은 일부일 만큼, 그의 24시간은 분주하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 뒤 그는 항상 치열하게 살았다. 스무살, 예나 지금이나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는 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계속 괴롭혔고, 난생처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틀었다. 1년간 대학을 다니다 다시 입시를 준비해 성균관대학교 의상디자인과에 들어갔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변에 증명해야 했다. 4.5점 만점에 평균 4.3이 넘는 성적을 유지하며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패션'을 삶의 키워드로 삼은 이후 그는 단 한순간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대학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학기가 끝나자마자 떠난 미국 유학. 패션 명문으로 알려진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 들어갔고, 필라델피아 드렉슬 대학교(Drexel University)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아무리 언어를 익혔다고 해도 원어민처럼 유창할 수는 없는 노릇. 그렇기에 그는 작품으

로 승부하기 위해 작업에 더욱더 매달렸다. 술한 밤을 새웠지만 과정은 즐겁기만 했다. 졸업 컬렉션에서 피날레 순서를 배정 받고, 최우수 졸업생 상도 받았다. 이후 그는 미국 패션의 중심지 뉴욕 맨해튼에 머물며 뉴욕 컬렉션 경험을 두루 쌓았다. 당시 뜨겁게 떠오르던 패션 브랜드 DKNY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한국에서 교수로 일할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나이 불과 28세. 가장 치열한 패션 현장에서 바로 한국 대학으로 날아온 젊은 교수는 책으로 접하는 패션 공부보다 실무와 연결되는 패션 교육을 실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패션 산업과 밀접하게 생활해야 했다. '치열함'은 교수로 살아가는 데에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할 삶의 태도였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달리다**

동덕여대를 거쳐 홍익대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교수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그는 변함없이 실무 중심의 패션 교육을 하고 있다. 경험이 쌓인 만큼 교육의 내용은 더욱 심화했다. 패션쇼의 규모는 커졌고, 산업과의 연계성도 깊어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은 수도 없이 경험한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패션쇼가 학생들에게는 항상 처음이라는 사실을. 더불어 그는 다짐한다. 스스로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고.

“저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직함 두 개가 있다면, ‘패션 디자이너’와 ‘교수’예요. 수업만 듣는 학생들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논문 쓸 때가 되면 다들 깨닫죠. 항상 과외로 시간을 내 학생들을 지도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라는 직업은 자리에서 떠나면 명함에서 사라지지만, 패션 디자이너는 평생 가져갈 제 업이죠. 패션 디자이너로 자기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한국에 돌아온 지 어느덧 21년째. 그사이 새내기 교수는 베테랑 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현역 디자이너로 활동한다. 과거의 영광만으로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DDP 유니폼 디자인을 비롯해 눈스퀘어, 아모레퍼시픽 오딧세이 스포츠 등 의상을 넘어 공간과 화장품,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렉팅을 해온 그는 2015년부터 루이까모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다. 이름만 올려놓은 명예직이 아니다. 광고와 마케팅, 컬렉션, 디자인 전반에 그가 직접 관여한다.



간호섭 교수는 지금은 “디렉터 시대”라고 말한다. 디자이너로서 자기 브랜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진 브랜드의 이미지를 총괄 감독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세계적으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패션 브랜드의 ‘얼굴’ 역할을 한다. 샤넬의 칼 라거펠트, 루이비통의 마크 제이콥스가 대표적이다. 누가 어떤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했냐는 사실이 그 자체로 홍보거리가 된다. 최근에는 에디 슬리만이 셀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 화제에 올랐다. 올해 간호섭 교수는 다시 홈쇼핑에 도전했다. 2000년대 초반 이미 홈쇼핑에 진출했지만, 브랜드 형식으로 론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9월 첫 방송에서 애초 목표의 250%를 달성하며 스타 디자이너로서 변함없는 파워를 증명했다. “아직도 저를 찾아주는 곳이 있어서 감사해요. 디자이너는 흥행이 곧 힘이거든요. 매출이 있어야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펼칠 기회가 커져요. 배우도 한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면 이후에는 예술 영화를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큰 맥락은 변함없다. 바로 '패션'이다. 그는 항상 이 원칙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냈지만, 지금도 그는 매번 외출을 타는 기분을 느낀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후회 없이 충실하게 산 오늘이 결국 내일을 이끈다.



#### 상업 패션과 예술 작품의 경계를 넘나들며

간호섭 교수는 아티스트로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1999년부터 선보인 '족자의(簇子衣)'는 그의 작업을 상징하는 시그너처가 됐다. 2000년대 초반, 모델 장운주가 그의 뮤즈로 나서 찍은 족자의 화보는 지금 봐도 감각적이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 럭셔리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라(Baccarat)'와 콜라베이션 전시를 열었다. 이는 바카라가 국내 아티스트와 협업한 첫 사례. 이 전시에서 그는 대형 십장생 족자의를 비롯해 사군자와 민화, 서예 등 다양한 족자의를 선보였다. 이 전시를 위해 족자의를 새로 제작하기도 했다.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협업 과정이 마냥 쉬웠을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그는 "계약이 새로운 만남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한다. 파리 국립장식미술관에서 족자의 전시를 할 때는 미술관 천장이 높아 기존처럼 벽에 족자의를 걸 수 없었다. 고심 끝에 로코코 양식 복장 중 하나인 '와토 가운'을 떠올렸다. 마네킹에 옷을 입히고 가운데처럼 족자의를 길게 늘어뜨렸다. 벽에 걸기만 하던 족자의가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한 순간이었다.

'동시대성'은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오드리 햅번이 입은 지방시의 블랙 드레스는 당시에는 현대적인 의상이었지만, 지금 쇼윈도에 걸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역사적인 의상으로 인식된다. 최근에는 럭셔리 브랜드도 격식에서 벗어나 스니커즈와 스냅백, 후드 티 같은 활동적인 의상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면 항상 시대의 변화에 촉을 세워야 한다. 그가 부지런히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이유다.

10월에도 그는 큰일을 벌인다. 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으로서 국제패션아트비엔날레를 준비하며 기아자동차와 협업을 진행하는 것. 이를 위해 전 세계 25개국의 디자이너를 초청했다. 참여 디자이너들은 자동차와 패션을 연계한 다섯 종의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큰 맥락은 변함없다. 바로 '패션'이다. 그는 항상 이 원칙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냈지만, 지금도 그는 매번 외출을 타는 기분을 느낀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후회 없이 충실하게 산 오늘이 결국 내일을 이끈다. 패션이라는 분야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이룬 멘토의 조언이 가슴을 두드린다.





# 집으로 가는 길

## 엄기섭 강원 삼척 소달초 교사

“인터뷰할 만한 일이 아니다.” 엄기섭 교사는 끝까지 인터뷰를 고사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제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많은 교사가 하는 흔한 일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그래서, 이 인터뷰는 더더욱 필요했다. 흔하다지만 잘 모르는 훨씬 많은 이를 위해서 말이다. <The-K 매거진>이 험한 산길을 걷는 어린 제자의 하룻길에 동행하는 엄기섭 교사를 만나러 강원 삼척으로 달려갔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 소달초 신입생과 소달초 부임 교사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때 쓰이는 거였다. 소달초에서 바라본 풍경은 말 그대로 웅장하고 거대했다. 산 뒤에 산, 또 그 뒤에 산이 보이니 인간은 그저 자연 속의 작은 미물일 뿐이라는 사실이 실감 나게 다가왔다. 그래서일까. 강원 삼척시 도계읍 교사리에 위치한 소달초는 유달리 아름다워 보였다. 태백에서 삼척으로 가는 옛 38번 국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벚나무에 둘러싸인 학교. 봄이면 벚꽃,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쌓인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울 터였다.

올해로 교직 생활 19년 차, 이곳 소달초에서 3년째 근무하는 교무부장이자 과학과 음악 교과목을 전담하는 엄기섭 교사를 뵈러 만났다.

“소달초는 1927년 개교한, 삼척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초등학교입니다. 900여 명의 재학생이 있던 시절을 지나 현재는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3명, 4학년 1명, 5학년 2명, 6학년 2명 등 총 11명이 다니는 작은 학교이지요.”

그와 소달초와의 인연은 깊다. 교사로서 막 발령을 받았을 때 소달초의 바로 이웃 학교에서 근무했고, 역시나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소달초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 보통 인연은 아닌 셈이다.

희진이 얘기를 꺼내자 엄기섭 교사의 얼굴이 몇 번의 전화 통화 이어 또다시 민망해졌다. “학생 수가 많은 중소도시, 대도

시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건 시골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전국의 수많은 교사에게 행여 자신의 별것 아닌 이야기가 과시처럼 느껴질까, 누가 될까 걱정하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덩달아 자세를 바르게 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희진이는 소달초 3학년 학생이다. 엄기섭 교사가 발령받아 왔을 때 희진이도 1학년 신입생으로 처음 학교에 발을 내디뎠다. 출발을 함께한 두 사람,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우연이지만 작은 학교에서 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 걷고 또 걸어오는 아이, 매일 데려다주는 선생님

희진이네는 산속에 있다. 걸다 보면 농로이고, 차 두 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길은 좁다.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도 많고 낙석이 많아 어른이 걸어도 위험한 곳. 그런 길을 희진이는 유치원 때부터 50분을 걸어 내려와 유치원 에듀버스를 탔고, 돌아갈 때는 산길을 되짚어 걸어서 귀가했다.

“희진이를 처음 봤을 때는 깡말라 있었고, 어렸지만 근육이 아주 탄탄했다”라며 엄기섭 교사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었다. 매일매일 등산을 한 셈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 누가 봐도 일곱 살 어린아이에게는 힘든 등·하룻길이었다.



Um  
Giseop



희진이가 소달초에 입학하자 교사들의 보살핌이 시작됐다. 사정을 얘기해 유치원 에듀버스도 계속 탈 수 있게 했고, 귀가할 때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1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께서 출장이나 연수 때문에 못 갈 사정이 생기면 제가 데려다주곤 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데려다주시던 선배 선생님께서 타 학교로 가시면서 제가 희진이와 함께 하게 됐지요. 약속했거든요. 제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책임지고 희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요.”

작년 한 해, 엄기섭 교사는 그 약속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켰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희진이에게 학교는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였다. 결코 학교를 빠지려 하지 않았다. 엄기섭 교사도 그에 부지런히 상응했다.

희진이의 사연이 바깥에 알려진 건 희진이의 1학년 때 담임교사 덕분이다. 페이스북에 희진이가 이야기를 올렸는데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사연을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강원희망재단에서 희진이의 등·하굣길에 택시를 지원해주기 시작했고, 올 3월 1일부터 희진이는 택시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산길을 50분씩 건넌 소녀가 온전히 편하게 학교를 오가게 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엄기섭 교사의 일이 끝난 건 아니다.

“눈이 많이 쏟아지던 날, 택시 기사님이 산등성이를 올라갈 수 없다고 연락해왔어요. 그런데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할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가는데 눈길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눈을 전혀 치우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륜구동 차임에도 바퀴가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다행히 주변에 눈이 한가득 쌓여 있어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차를 몰면서 어찌어찌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희진이가 해맑게 웃으며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1km 이상을 걸어 내려온 거지요.”

함박눈을 어깨머리에 한가득 이고 행여 넘어질까 비척대며 걸어오던 아이... 엄기섭 교사는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로 오면서 자신이 왜 교사가 됐는지 다시 한번 되뇌었다.

**내 자식을 살피는 마음으로**

“제가 교사가 된 이유요? 고등학생 때 주말 명화극장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고 결심했어요. 로빈 윌리엄스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학교 선생님들은 교대 대신 사범대를 갈 것을 권했다. 이왕이면 사범대에 진학하는 게 좋다고. 그 이유가 궁금해진 엄기섭 교사는 차례차례 은사들을 찾아갔다. ‘제가 7~8년 뒤에 교사가 됐을 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바뀔까요?’라는 물음표를 가진 채.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하하.”

그의 바람은 하나다. 교육 효과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잘 자랐으면 하는 것. 공부하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엄기섭 교사는 오늘도 희진이를 찬찬히 지켜보고 살펴본다. 머릿도 좋고 집중력도 좋은 아이, 공부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친구 희진>**

**희진이는 집에 갈 때 선생님이 데려다준다. 희진이는 집까지 혼자 걸어간다. 아주아주 힘들겠다. 유치원 갈 때도 힘들었겠다. 아주아주.**

**아, 오늘 희진이 또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서 힘들었겠다. 희진이는 착하다. 하지만 소리가 크다. 그래도 좋은 친구다.**

양하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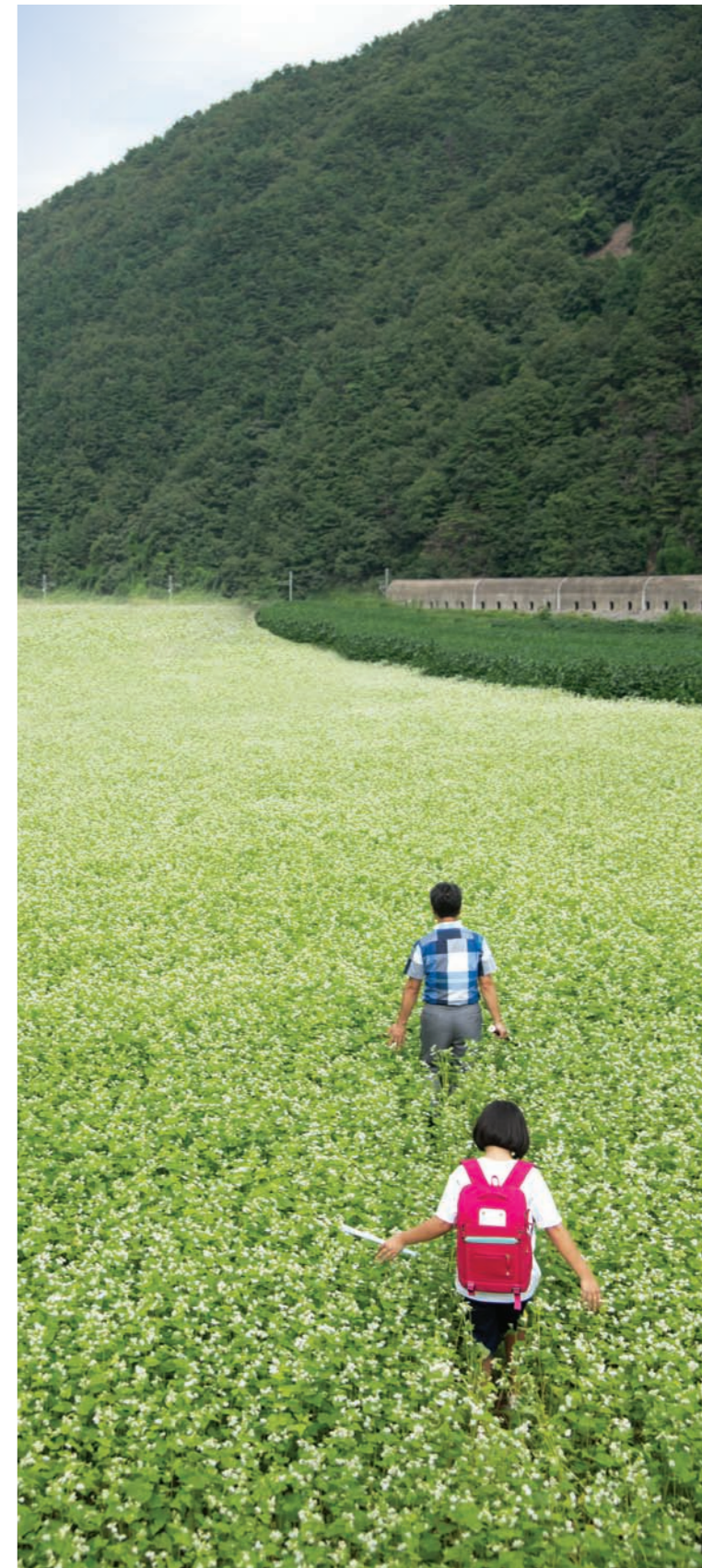


게 안타깝지만 정도 많고 학교에서 어린 동생들도 잘 돌보고 심성도 곧은 이 아이가 그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면서.

수업이 끝나고 오늘도 선생님 차에 오른 희진이는 차 문을 닫자마자 조잘조잘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다. 다 트인 세상에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속내를 선생님 차 안에서는 막힘없이 터뜨렸다. “택시를 타고 다니지만 사실 선생님 차를 타는 게 더 좋다”라고 살짝 취재진에게 고백한 희진이. 나중에 자라서 친절하고 좋은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희진이의 꿈은 아마도 엄기섭 교사의 애정과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떡잎을 틔우고 줄기를 내면서 조금씩 성장해나갈 것이다.

“도시에서 한 반에 20~30명 되는 아이들을 돌보던 정성이 시골로 와 한 반에 1~3명 되는 아이들에게 향한다면 그 밀도와 성의가 더욱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금세 압니다. 선생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요. 그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고, 지키고자 합니다.”

밥을 먹던 희진이가 웃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희진이가 또 웃었다. 선생님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걷는 희진이는 계속 웃고 있었다.





# 고마워, 사랑해, 함께여서 행복해

사람들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만큼의 무게일까. 사랑보다,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진 세상, 꼬꼬마 시절 만나 지금까지 여전히 마음의 가치를 제일 높은 곳에 두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문세진 주무관과 오현정 교사가 함께한 우정 여행은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며 두 손을 꼭 잡은 채 걷는 인연의 실로 꼭 묶여 있었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이곳 한옥은  
주말에 우정여행  
관공의 체험 및  
특산자 체험을  
따라하는 곳입니다.  
문의: 02-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문의: 02-1234-5678

**문세진**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  
**오현정** 서울 신북초 교사

## 우정 여행, 발길 닿는 곳으로 출발

멀리서 이사 온 여덟 살 꼬마는 아는 친구 하나 없는 학교에 입학했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서 오도카니 서 있던 소녀에게 관심을 보인 건 자신보다 한참 체구가 작은 꼬마 친구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를 이끌며 친구를 소개해주고 “우리 같이 놀래?”라고 말해주던 친구. 그때는 몰랐다. 이 친구가 긴 세월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 줄 것이라고.

문세진 주무관이 올해로 꼭 20년을 맞은 친구와의 우정을 기념해 <The-K 매거진>에 꼭꼭 눌러 쓴 메일을 보냈다. 예상치 못해서일까, 사연이 뽐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문세진 주무관의 기쁨은 대단했다.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다들 쳐다볼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여행 당일, 기쁨은 곧 당혹스러움으로 바뀌었다. 태풍 솔릭의 복상으로 원래 여행 목적지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비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의 묘미가 어디 정해져 있던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선물 같은 것이 여행 아니던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목적지가 급작스럽게 강화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새벽같이 길을 나서느라 조용하던 배꼽시계가 정오가 가까워오자 아우성쳤다. 여행지를 즉흥으로 결정한 까닭에 모두가 검색에 나섰다. 이맘때쯤 강화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가 ‘꽃게’라는 사실에 길을 나선 모든 이가 동감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외포리 꽃게마을에 가기로의 견일치를 보았다. 문세진 주무관과 오현정 교사의 얼굴에는 창밖의 빗물보다 맑은 미소가 번졌다. 도착한 충남서산집은 전국구 맛집답게 평일이었음에도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푸짐하게 차려 낸 꽃게탕과 간장게장은 특유의 감칠맛과 짭찬 살로 모두를 만족시켰다. 뜨거운 흰쌀밥 위에 올려 먹는 것갈 또한 일품이다. 자, 불러온 배를 텅겨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 여행 출발!



**역사와 전통의 도시, 강화를 체험하다**

첫 방문지는 소창체험관이였다. 1910년 이후 직물 산업의 전성기를 맞았던 강화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크기는 작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을 사이에 두고 1938년 건축된 한옥과 체험관이 보였다.

먼저 다도 체험 차례.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차에 대한 이야기와 차를 마시는 법 외에도 강화의 역사와 방직 산업 이야기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서였다.

“강화도는 1916년부터 방직 산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개성이 가깝고 인천항이 있으니 물류 환경이 매우 좋았던 덕분이지요. 1970년대까지 인구가 12만 명에 달하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이곳 소창체험관에서는 일본식 한옥을 볼 수

있고, 과거에 염색 공장, 물류 창고로 이용했던 별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포트에 물이 끓어오르고 강화 약쭈의 향기가 방안에 감미롭게 퍼져나갔다. 강화 약쭈를 3년간 잘 숙성시키면 민트 향이 나고 약성이 좋아져 왕실에 진상을 했다는 이야기, <동의보감>에 약쭈이 다섯 차례나 나온다는 사실, 강화의 유명한 사찰 전등사에 약쭈를 보관하던 창고가 따로 있었다는 것, 쭈뽀를 할 때는 강화 약쭈만 쓴다는 것 등 세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에 문세진 주무관과 오현정 교사가 흥미로운 얼굴로 집중했다.

차를 마시는 방법은 온화하다. 특히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드리는 과정에서 팔로 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생기는 좋은 에너지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에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따라 하게 만들었다. 두 친구가 겸양의 자세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니 새삼 둘의 관계가 더 깊어 보였다.

화문석이 깔린 마루에서 비 오는 오후의 정취를 한껏 즐긴 뒤, 소창 손수건 만들기에 도전했다. 소창은 방적사를 평직으로 성글게 짠 면직물로 주로 이불 안감이나 기저귀감 따위로 쓰는 부드러운 피륙이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스탬프에 염료를 묻혀 취향대로 손수건을 꾸몄다. 문세진 주무관과 오현정 교사가 서로에게 주는 메시지를 곱게 담아 선물로 주고받았다. 깔깔대면서 도장과 색깔을 고르고 골라주는 모습에서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의 천진함이 언뜻 스쳤다.

“어릴 때부터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했어요. 함께 단거리 마라톤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불러내 수다와 맥주 한잔으로 고민을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함께 해외여행을 갈 때도 흑여의가 상할까 봐 둘다 지레 겁을 먹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여행 스타일까지 딱 맞아서 정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두 친구가 함박웃음을 지었다.

**친구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며**

강화에 왔으니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조양방직 카페에 들르지 않을 수 없었다. 1933년도에 만들어진 근대식 방직 공장인 이곳은 들어서자마자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란다. 곳곳에 가득한 희귀한 빈티지 소품에서도 눈을 뗄 수 없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은 것도 이채로운 풍경이다. 물론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정원 곳곳의 노란 조명에 불이 들어왔다. 꼬리를 바짝 치켜든 채 두 친구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분위기에 운치를 더했다. 뒤늦게 발견한 오래된 교과서 두 권이 ‘교직원’이라는 교집합을 갖고 있는 친구 사이에 또 화젯거리가 되었다.



사실 두 사람이 유독 애뜻한 시간을 보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내년쯤 오랜 시간 사귀어 온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 문세진 주무관을 향한 오현정 교사의 남다른 마음 때문이다.

“대학 1학년 때 세진이랑 한강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어요. 그때 세진이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만난 한 선배가 자기한테 잘해준다며 고백하더라고요. 제게 첫 연애의 비밀을 알려준 건데, 그때의 공기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그 선배가 지금의 남자친구, 곧 세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에요.”

두 친구는 쿨러기는 낙엽을 본 양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다. 소소한 일상과 삶의 큰 획을 모두 자기 일처럼 기억하고 있는 두 친구. 서로를 향한 애정만큼은 하나임에 틀림없는 두 사람이 부럽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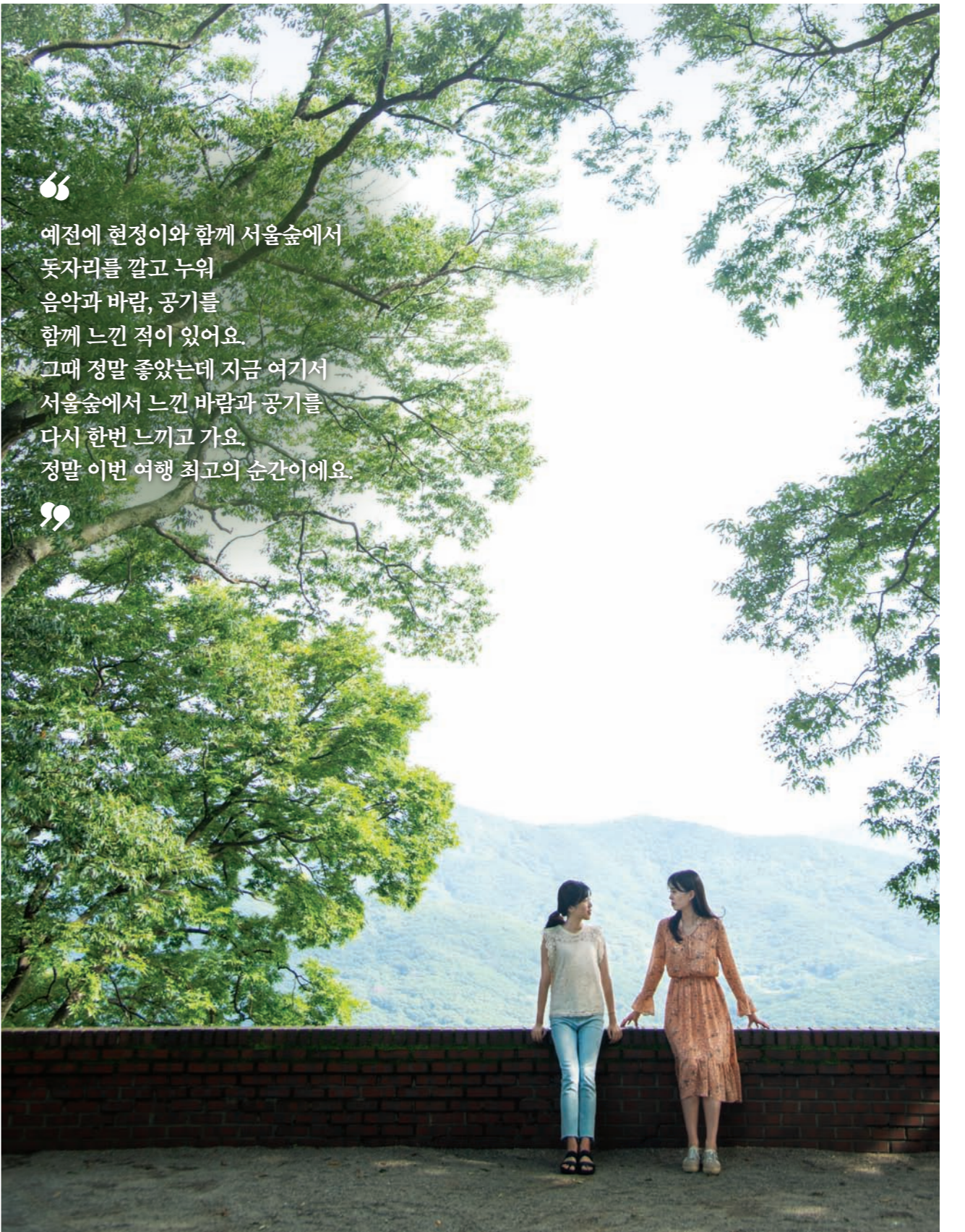
늦은 저녁을 먹은 뒤 모두 빠르게 숙소로 돌아왔다. 이 여행이 설레고 긴장돼서 여행 전날 밤 2~3 시간을 뒤척였다는 오현정 교사가 가장 먼저 굽바이 손을 흔들었다.

**최고의 순간, 우리의 우정 덕분에 행복했어**

다음 날 아침, 두 친구가 맑게 갠 하늘만큼이나 화사하게 웃으며 등장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이날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 말이다. 그 기대감은 바로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얼마 전 강화에 문을 연 ‘루지’를 타보기로 한 것이다. 루지는 카트를 타고 경사면과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내려오는 레포츠로 강화의 메가루지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할 뿐더러 동양 최대 길이를 자랑한다.

출발 지점이 산꼭대기에 위치해 풍광이 기막히다. 귀여운 안전모를 쓰고 꼬불꼬불한 트랙을 카트를 탄 채 신나게 내려오는 두 사람. “너무 신나요!”라는 외침이 메아리로 돌아왔다.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겼으니 다음에는 마음을 다스릴 고아한 공간을 찾아볼 차례였다. 강화에 오는 수많은 사람이 찾는 전등사와 초지진, 고려산의 서쪽 낙조봉에 위치한 적석사가 바로 그곳이다. 강화에서 가장 큰 사찰인 전등사에는 주말



“예전에 현정과 함께 서울숲에서 돛자리를 깔고 누워 음악과 바람, 공기를 함께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서울숲에서 느낀 바람과 공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가요. 정말 이번 여행 최고의 순간이에요.”



###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 문세진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꾸준히 보아온 <The-K 매거진> '아름다운 동행' 코너를 통해 우리의 20주년 만남을 기념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사실 그동안 강화에 몇 번 놀러 왔는데 이번처럼 알차고 신선한 여행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교육공무원이 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이는 제가 감정이 치우쳐서 갈팡질팡할 때 늘 차분히 조언해주고 작은 고민 하나도 세심하게 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친구이고요. 우정이 퇴색해가는 요즘, 계산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오로지 서로를 위한 마음만을 간직한 채 오래오래 이 우정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우정은 변치 않으리라 믿어요. 더 나은 존재로서의 저를 만나게 해주는 현정이에게도 크고 뜨거운 애정을 전합니다.

#### 오현정 서울 신북초 교사

세진이는 어린 시절 키 작고 왜소했던 제게 참 커다란 친구였습니다. 그 씩씩함과 발랄함이 좋아서 태권도 학원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았죠. 집이 가까워 힘든 퇴근길이면 불러내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한강이며 안양천을 걷던 수많은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임용시험과 교육공무원 준비를 함께하면서 어땀(?) 짙은 날 같이 독서실에서 격려하고 토닥이던 시간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진이는 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교육이라는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세진이에게 교사의 상황이나 입장을 전해주고, 저는 일하면서 생긴 말 못할 고충을 더하거나 뺄 없이 다 털어놓고 이해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세진이의 결혼이 아직 실감 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결혼해서 육아를 하고 지척에 살고 싶다는 꿈은 여전히 꾸고 있고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강화의 풍요로운 자연을 세진이와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을 맞아 꽤 많은 인파가 북적였다. 곱게 핀 연꽃을 감상하고 치명적 곡선을 자랑하는 대웅전을 살핀 뒤 모두 초지진으로 이동했다. 해상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방위하기 위해 만든 초지진은 외세와 치열한 전투를 벌인 역사의 현장. 누가 교직원 아니랄까 봐 두 친구가 초지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성벽 길을 천천히 누볐다. 그 옛날 호국 정신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력을 다해 싸운 우리 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듯. 전등사에 비해 한가롭고 여유롭지만, 가파른 산자락에 위치한 적석사로 들어가보았다. 절 마당에 서자 생각지 못한 풍경이 펼쳐졌다. 저 아래로 강화 분지가 한눈에 들어온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논밭, 구불구불한 강길, 저 멀리 북녘 땅까지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숲길을 따라 좀 더 오르자 절벽 아래 더 너른 공간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3대 낙조 중 하나로 꼽히는 동시에 강화 8경 중 하나인 이곳을 해 질 녘에 찾아오지 못한 게 아쉬웠다.

“예전에 현정이와 함께 서울숲에서 돛자리를 깔고 누워 음악과 바람, 공기를 함께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서울숲에서 느낀 바람과 공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가요. 정말 이번 여행 최고의 순간이에요.”  
 가을 시작점에 선 순간에 떠난 여행,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굵게 흠뻑리고 여행지 날씨는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그 번덕과 당혹스러움은 좋은 친구 둘이서 함께 여행한다는 의미에는 당할 수가 없었다. 꾸준히 잘 익혀 발효시킨 20년 우정 아래서 이 작은 고생은 그저 애정을 확인하고 되새길 수 있는 작은 돌부리에 불과했으니까.  
 여덟 살에 만나 20년을 함께 마음을 나누어왔고, 이제 결혼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눈앞에 둔 두 친구. 그들이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다. 먼 훗날 이들에게 조금의 어려움과 눈물이 닥쳐도 지금 이 순간을 단단하고 영롱한 방패로 꺼내 들어 서로를 지켜주지 않을까.  
 두 친구분! 40주년 우정 여행 때도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두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외포리 꽃게마을**

외포리 꽃게마을은 강화에서 이름난 먹거리 마을로 탕을 비롯해 간장게장, 찜, 무침 등 다양한 게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암게는 5~6월, 수게는 가을이 제철이다. 이곳의 꽃게는 살이 꽉 차 있고 감칠맛과 단맛이 나 tvN <수요미식회>에 나올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았다. 외포리는 또 뽕댕이, 새우젓 산지로도 유명하다.

📍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일대

**소창체험관**

1930년대에 건축된 한옥과 공장 건물이 소창체험관으로 새로 태어났다. 1960~1970년대 강화군의 지역 경제를 이끌던 평화직물 공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옥 안채에는 강화에 서만 볼 수 있는 넓은 다락이 있으며, 일본풍으로 지어진 별채 내부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어우러진 것이 이채롭다. 이곳에서는 다도 체험과 소창 직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 032-934-2500(월요일 휴관)

**적석사**

고려산 서쪽에 위치한 적석사는 고려시대 천축국 스님이 고려산에 올라 다섯 송이의 연꽃을 날렸는데 그중 붉은 연꽃이 떨어진 곳에 세운 절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적석사 서만 볼 수 있는 넓은 다락이 있으며, 일본풍으로 지어진 별채 내부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어우러진 것이 이채롭다. 이곳에서는 다도 체험과 소창 직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 강화군 내가면 연촌길 181  
☎ 032-932-6191

**강화 메가루지**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특수 제작한 카트를 타고 땅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내려오는 루지는 벌써 강화의 명물이 되었다. 트랙은 총길이 1.8km의 코스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360도 회전 코스와 터널, 낙차 구간 등으로 역동적인 루지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바다를 보며 내려오는 뛰어난 조망은 덤이다.

📍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4-15  
☎ 032-930-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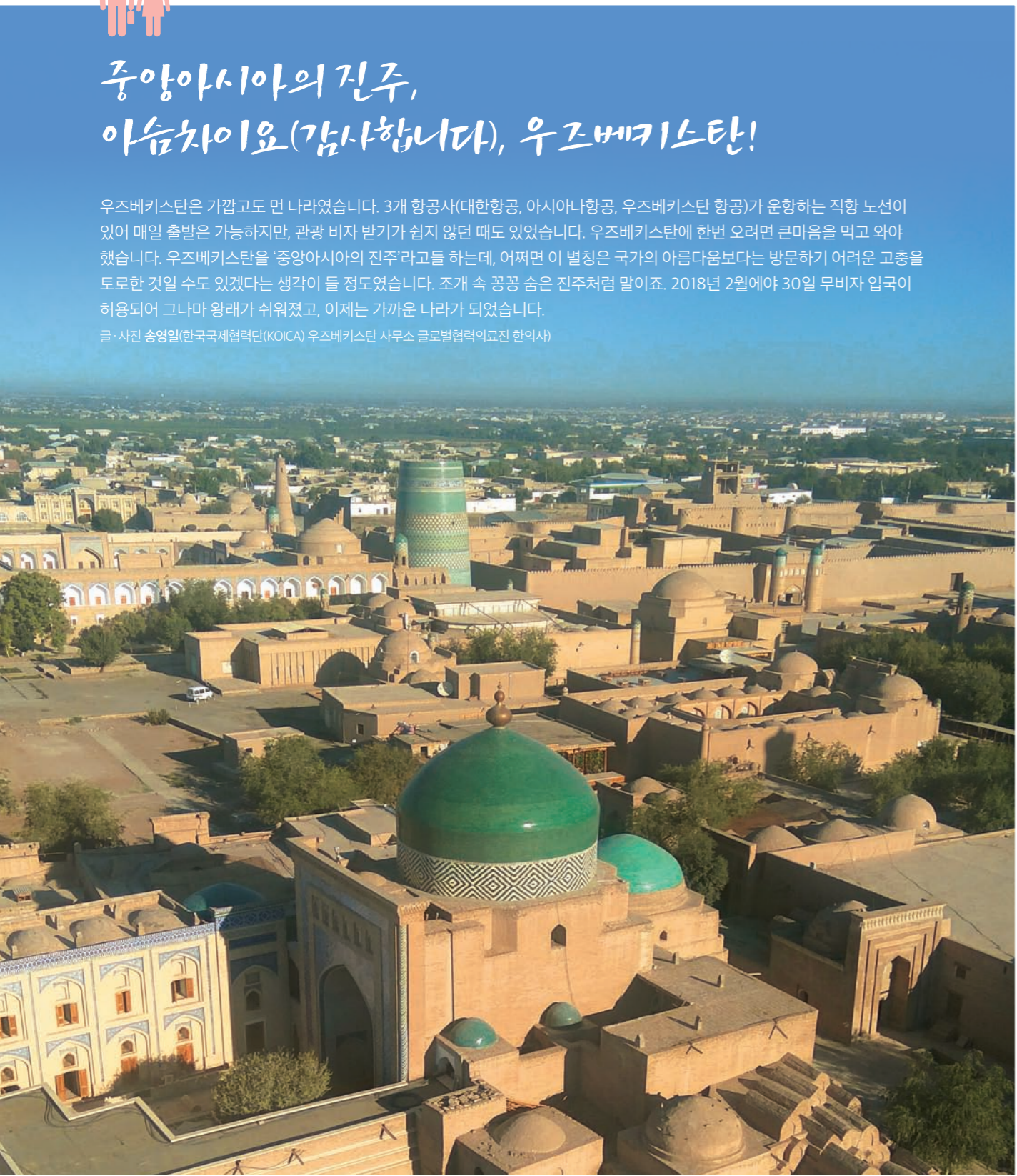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의 진주, 아슈차이요(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3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즈베키스탄 항공)가 운항하는 직항 노선이 있어 매일 출발은 가능하지만, 관광 비자 받기가 쉽지 않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오려면 큰마음을 먹고 와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진주'라고들 하는데, 어쩌면 이 별칭은 국가의 아름다움보다는 방문하기 어려운 고충을 토로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조개 속 콩콩 숨은 진주처럼 말이지요. 2018년 2월에야 30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그나마 왕래가 쉬워졌고, 이제는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글· 사진 송영일(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글로벌협력의료진 한의사)



##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과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인접 국가가 아닌데도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10월 러시아 극동 지방에 모여 살던 약 20만 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것입니다. 강제 이주는 지금까지 일군 삶을 모두 포기하고 생면부지의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인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이 모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강제 이주로 어렵게 살아가던 고려인의 생활을 도와주고 이후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고려인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으며,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성으로 김병화 농장 등 다수의 콜호즈(집단 농장)에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구소련 시대에 '노력영웅'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려인의 삶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였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우즈베키스탄은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또다시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우자동차 공장을 세웠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합니다. '한류'가 불기 이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을 친숙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대한민국을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건설,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하대 우즈베키스탄 분교'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재방영될 만큼 유명한 <대장금>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에게 한의학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의료 문화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장금>이 방영되기 이전에 이미 한의학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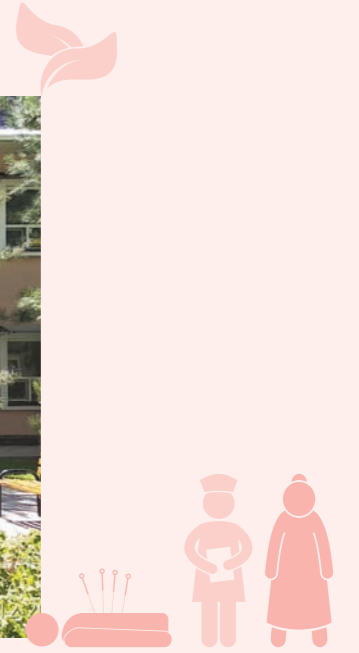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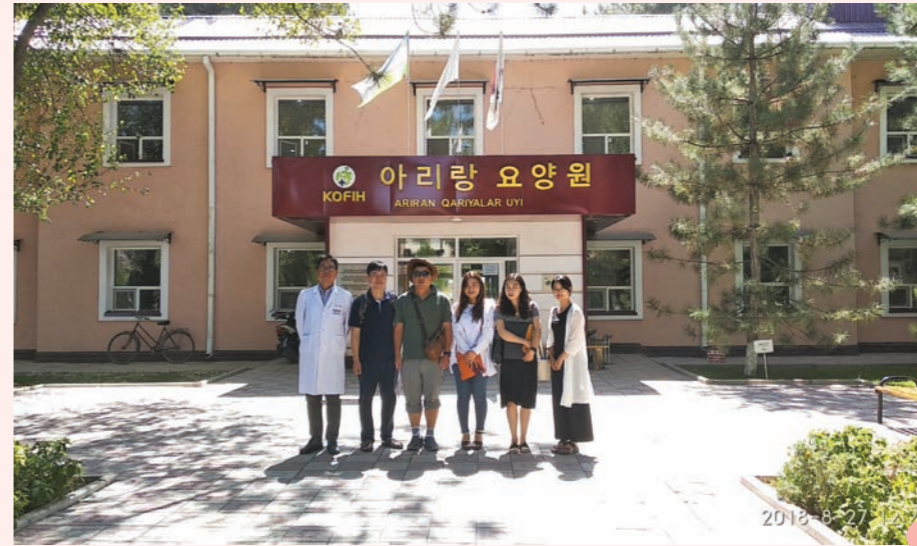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한의약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1996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이 우즈베키스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한의약 진료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1997년 6월 9일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 한방 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이곳에 지속적으로 파견돼 한의약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매년 7·8월에는 한국에서 모집한 KOMSTA 봉사 단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역을 돌며 한의약 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2017년에는 타슈켄트·페르가나·사마르칸트·부하라·우르겐치·누쿠스에서, 2018년에는 타슈켄트·페르가나·부하라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각 도시를 연결하면 그 자체로 실�크로드가 됩니다. 과거에는 대상(隊商)이 낙타 무리를 이끌고 먼 길을 오가며 비단을 사고판 이 길에서 봉사 단원들은 한의약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20여 년이 넘는 노력은 의미 있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최대 의학 교육기관인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에 한의약 정규 과정이 생겼는가 하면, 2018년부터는 부하라에서도 한의약 수업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 의사 재교육 센터에도 한의약 교과과정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한의약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발전에는 고려인 동포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한의사로서 우즈베키스탄의 한의약 발전 상황을 지난 10여 년간 직접 바라보며 느낀 것입니다. 1996년 KOMSTA 봉사 활동이 성황리에 진행된 것도 고려인 동포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 한방 병원이 만들어진 것도, 그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계속된 것도 말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한의약 분야는 고려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강제 이주 후 어려운 시절에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침 치료를 받은 경험 등 고려인 노인들의 이야기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인류학적 이야기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심리학적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고려인 동포와의 만남은 항상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에서 운영하는 아리랑요양원이 있습니다. 돌볼 사람 없는 고려인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이 요양원은 현재 40여 명의 고려인 노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실�크로드 봉사를 마무리 지으며 아리랑요양원에서도 한의약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말을 잊지 않고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두 손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고려인 할머니 한 분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과 제가 성(姓)이 같은 걸 알려드리자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자기와 같은 성씨를 보기 어려웠는데, 저 멀리 조국에서 온 한의사의 이름에서 조국의 그리움을 느끼셨나봅니다. “잘 지내셨나요?”라는 질문에 “일 없소(잘 지내요)”라고 대답해주시는 이분들은 헤어질 때 “아슴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작별 인사라고만 짐작했는데,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제가 먼저 “아슴차이요”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며 살아온 그분들의 고된 삶을 한마디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고맙고 미안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송영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의학 박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13기 국제협력한의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했다. 우즈베키스탄이 너무 좋아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온 뒤 한국의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2009년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새롭게 삶의 터전을 이룬 곳이며, <대장금>을 하도 보아 외우다시피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한국의 한의약을 배우는 의사가 많은 땅입니다. 언젠가 우즈베키스탄에 오신다면, 고려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여러분이 먼저 “아슴차이요”라고 말해보세요. 따뜻한 미소가 모두에게 번질 것입니다.





# 의미를 찾다 지치느니, 무의미의 재미를 찾겠어

## - 무민 세대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고민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과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어른이 된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는 그 답을 애써 찾지 않는다. 스스로를 ‘무민(無Mean) 세대’라고 부르며, 의미나 가치를 얻기 위한 삶을 포기한다. 그들은 느슨한 관계와 무덤덤한 놀이에 만족하며, 지루하더라도 고민 없는 삶을 원한다.

글 이명석 (문화비평가)

삶을 선호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64.4%에 이른다. 끝나지 않는 취업 전쟁, 성공을 위한 경쟁에 지친 세대가 삶의 방향을 급속히 돌리고 있다.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젊은이들의 열정이 지나치게 타오른 시대 이후에는 싸늘한 냉각기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서는 이념적 가치보다는 코카콜라, 로큰롤을 숭배하며 쾌락에 빠지는 세대가 나왔다.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비행 청소년도 대거 등장했다. 사회비평가 폴 굿맨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바보 어른으로 성장하기>라는 책을 내놓았다. 그가 만난 젊은이들은 이런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기성세대가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전쟁으로 세계를 멸망시킬 뻔했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1980년대에는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열망, 1990년대에는 ‘X-세대’로 대표되는 문화적 갈망을 분출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경제 침체, 이념의 쇠퇴, 공동체의

만화 <무민>은 북유럽 전설에서 유래한 트롤 가족의 이야기다. 이들은 한적한 바닷가에서 먹고 노래하고 잠자는 유유자적한 삶을 즐긴다. 그런데 이 무민이 갑자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방에 들어왔다. 하지만 포동포동 귀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무민은 ‘없을 무(無)’에 ‘의미 민(Mean)’,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당신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2월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성인 남녀 11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2%가 스스로를 ‘무민 세대’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20대는 절반 가까이 (47.9%)에 이르렀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2018년 1934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돈은 덜 벌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해체 속에서 이런 에너지가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IT 버블부터 비트코인 열풍까지 일회성 도박 외에는 삶을 개선할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잉여’라고 자학하며 의미 없이 대형 새우깡 봉지 안에 과자가 모두 몇 개 들어 있는지 세어 인터넷에 올리며 ‘잉여력’을 뽐내곤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잉여가 놀이 문화에 그치지 않는다. 삼포, 사포를 넘어 칠포 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 전체가 스스로를 세계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잉여 세대로 여긴다. 청년들 가운데 번지는 무기력을 삶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은 생존 경쟁에 낙오되어 무민이 된 게 아니다. 경쟁의 위험을 회피하는 쪽이 생존율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다. 무리하게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 자신을 소진하기보다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일본에서 화제를 모은 소설 <편의점 인간>은 18년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무라타 사야카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인생관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

고전 연구자 고미숙은 저서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를 통해

이런 삶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백수는 사회에 기생하는 잉여 인간이 아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프리랜서’일 수 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업무를 대체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투잡을 뛰면서 더 열심히 살아갈까? 아니면 여유롭게 한 가함을 즐길 것인가? 고미숙은 조선 시대의 독특한 지식인 연암 박지원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무민 세대는 위로받고 싶다. ‘지금 쉬어도 괜찮아’, ‘꼭 거창한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아’. 그렇게 헛된 갈망을 버리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나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지루함을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 북유럽의 무민은 때가 되면 모험을 떠난다. 남쪽 바다로 가서 해수욕을 즐기고, 큰 생선을 잡아 파티를 열고, 해적과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지루한 세대 직후에는 다시 열정적인 세대가 등장하게 마련이니까.





# 바람을 가르다, 물 위의 인생을 즐긴다

## - 교원수상스키 동호회 -

관심은 있지만 선뜻 용기 내기가 힘들다. 하고는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아마도 많은 사람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가 수상스키가 아닐까. 물에서 하는 레저 스포츠의 꽃인 수상스키는 전신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최적으로 꼽힌다. 이른 아침부터 교원수상스키 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 레저 스포츠의 꽃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교원수상스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다.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모여든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꽤 넓은 사실에... CF나 TV 드라마, 영화에서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은 대개 젊은이인 데에서 비롯된 일종의 편견 때문이었다. 수상스키는 서핑과 스키의 특징을 결합한, 물 위에서 즐기는 레저 스포츠다. 스키를 신고 모터보트에 매달려 물 위를 질주하는

수상스키는 1922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여름에도 스키를 탈 방법을 찾다가 개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원수상스키 동호회는 10여 년 전 창설되었다. 수영 동호회 활동을 하던 교직원 중 이왕이면 물을 이용해 좀 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겨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처음에 수영 동호회 여러분 중 수영을 오래하신 15명 정도가 모여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 수는 10여 명이고요. 친목과 운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아주 잘 잡고 있





는 동호회지요.”

만능 스포츠맨답게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자랑하는 김남옥(서울 건대부고 교사) 회장이 설명했다. 김남옥 회장은 수상스키 예찬론자다.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 물과 친숙하다면 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하체 단련에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름을 신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지요. 하하.”

오늘 모인 회원들은 김남옥 회장을 포함해 총 5명. 성별도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건강미 넘치고 호탕한 웃음이 공통점이다. 김 회장은 특히 교직원들이 스포츠를 취미로 즐기기를 바랐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접점을 찾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이만한 활동이 없다는 것이다.

**물살을 가르며 자연과 하나 되다**

김남옥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회원들이 모두 래시가드로 갈아입었다. 강바람이 꽤 차서 과연 이런 날씨에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을지 걱정 가득한 눈으로 회원들을 바라보자 백명주(서울 방이초 교사) 회원이 다가와 바람은 차지만 의외로 물속은 따뜻하다며 취재팀을 안심시켰다. 그 소리에 간장에 튀김을 찍듯 강물에 살짝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어라? 의외로 수

온이 높다.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수상스키업체 주인이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져 10월에도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다”라고 귀띔해주었다.

모두가 모여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장비를 꼼꼼히 챙긴 뒤 먼저 김남옥 회장이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다. 구명조끼를 잘 갖춰 입고 스키를 신은 뒤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김남옥 회장의 스키를 끌어줄 보트가 대기 중이었다. 보트가 출발하자 하얀 물보라와 함께 김 회장이 스르륵 물위로 일어섰다. 파도 거품에서 탄생했다는 비너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감탄이 절로 나왔다.

물 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물에서 지켜보는 회원들은 환호를 보내고, 갤러리로 보트에 탄 회원은 또 열심히 응원을 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김미숙 회원은 “물살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며 수상스키의 매력을 힘줘 강조했다. 물 위에 떠서 달리는 기분을 수상스키가 아니면 어디서 느낄 수 있겠냐며 “너무 좋아서 처음엔 막 소리를 질렀다”는 자랑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오늘 모인 회원 중에는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둘이나 있었지만, 나이와 수상스키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 관록이 있



고 경험치가 있으니 오히려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나이 들면 부족해지는 근력까지 키울 수 있으니 딱 보기에도 회원 모두의 상하체가 탄탄했다. 조정력과 예측력,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전신운동으로서 이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모든 회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방수연(서울 방이초 교사) 회원은 다른 회원들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받는 멤버 중 하나다. 수상스키를 마치고 함께 나눠 먹을 간식을 싸 오느라 늦었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껄껄 웃었다. 하나같이 늦는 게 뭐 대수겠는가, 하는 표정이었다.

“예전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위험한 스포츠는 못 하는데, 수상스키는 실수를 해도 물에 빠지고 마니까 충격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탈 수 있죠. 제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방수연 회원이 물살을 가르며 모습을 보기 위해 이번에는 기자도 보트에 동승했다. 간접적으로나마 그 기분을 느껴야 기사를 쓸 수 있다는 핑계가 스스로 생각해도 훌륭했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보트가 달리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엄청난 스피드를 냈다. 조금 긴장됐지만 한쪽에는 질푸른 숲이 가득하고, 폐부에 들어차는 공기는 모든 먼지와 답답함을 씻어주니 그 느낌이 기가 막혔다. 웨이크크루싱이라고 좌로 우로 둥글게 왔다갔다 방향을 바꾸면서 달리는 방수연 회원의 표정에도 말 그대로 환희가 가득했다. 직접 타지 않아도 그 맛이 무엇인지 넉넉히 짐작이 갔다. 수상스키, 최고다.

이어서 백명주 회원, 유연경 회원 모두 순차적으로 수상스키에 도전했다. 모두가 가볍게 물속에서 일어나고 화려하게 질주한 뒤 마지막에는 로프를 놓고 짹짹 박수와 함께 가볍게 물속에 가라앉는데, 그 모습이 여간 근사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수상스키를 탔다는 백명주 회원은 처음부터 긴장감 없이 시작했다고 환하게 웃었다. “수영을 할 줄 알고,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괜찮았어요. 두 번 도전만에 물 위에서 일어섰지요.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위험할까 봐 겁내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으니 물에 빠지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운동입니다.(일동 웃음)”

올해로 수상스키 경력 7년 차인 유연경 회원은 윈드서핑, 스킨



스쿠버,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매력남이지만 스포츠의 최고봉은 역시 ‘수상스키’라며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수상스키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지나가다가도 들어와서 장비를 대여해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탁 트인 시야에서 타는 느낌은 스키보다 좋고 즐거우며 시원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죠.”교직원으로 이루어진 수상스키 동호회는 운동 자체가 주는 매력도 크지만 같은 직업군의 회원들이 나누는 정의 밀도도 매우 높다. 수상스키를 마무리하고 바로 앞 평상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학교 현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 서로 노하우를 전수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이야기다.

모두가 2~3번씩 돌아가며 수상스키를 즐기고 나니 실내 테이블에 푸짐하게 간식상이 차려졌다.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는 집에서 가져온 과일이며 샌드위치를 꺼냈다. 땀 흘린 뒤 충전하는 당분과 수다는 또 얼마나 즐거운가.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많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바로 교원수상스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 때문이다.

**교원수상스키 동호회**

수상스키는 빠른 스피드로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입니다. 수영을 못 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 모두 상관없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김남옥 회장 010-8971-3336







거리에 단풍이 물들어가고,  
어딘지 포근함을 품은 공기,  
술에도 계절이 있다면 가을은  
단연 와인의 계절이 아닐까?  
영롱한 빛깔, 진한 향기, 깊은 맛.  
와인을 즐기는 삼박자 외에 알아두면  
쓸데 많은 와인의 이모저모! 지금부터  
함께해보자.

## 가을에 물들다, 와인에 빠지다

### 경리단길 유서 깊은 와인 바 더젤 The Jell

2010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한국의 대표 와인 레스토랑, 더젤(The Jell). 1992년부터 경리단길에 자리한 더젤은 외관상 100년 이상 된 오래된 벽돌 건물이 특징이고, 내부에는 세계적인 예술품과 고급 와인이 가득한데, 그 자체로 마치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킨다. 서울 남산의 경치가 한눈에 펼쳐지는 풍경은 품격 있는 와인 다이닝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더한다. 마리아주로 시그너처 메뉴인 최소 스테이크와 자하짓 파스타를 추천한다.

- 📍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67
- ☎ 문의 02-797-6846



### 와인을 배우자 WSA와인아카데미

와인을 좀 더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WSA와인아카데미는 2005년 국내 최초로 WSET(Wine & Spirit Education Trust) 과정을 도입한 국내 최고 국제 인증 와인 교육기관이다. 기초 취미 과정에서 소믈리에 전문교육, 그리고 미식 강연까지! WSA와인아카데미는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개발한 영국 WSET 본원의 표준 과정에 따라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해 와인에 대한 지식을 마치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습득할 수 있다. 탄탄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선정된 테이스팅 와인 외에 다양한 와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와인 지식을 하나로 완성하니 어렵고 불편하던 와인이 비로소 쉽고 편해진다.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0 삼양빌딩 1층
- ☎ 문의 02-516-3773



### 향을 담는 그릇 와인 잔 이야기

와인마다 맛과 향이 다르듯 각각의 잔도 특징이 다르다. 와인 잔은 크게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으로 구분한다. 보르도 레드 와인 잔은 우리가 떠올리는 전형적인 툴립 모양이다. 특유의 텅텅함을 최대한 덜 수 있어 타닌이 강한 와인을 따라 마신다. 부르고뉴 레드 와인 잔은 볼 부분이 더욱 볼록하다. 특히 정상급 와인을 마실 때 좋은데 볼이 넓을수록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어 와인의 풍미가 더욱 살아나기 때문이다. 화이트 와인 잔은 보통의 레드 와인 잔보다 작다. 대부분 차갑게 마시기에 상큼함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스파클링 와인 잔은 기다란 툴립 혹은 플루트 모양이다. 그런 만큼 와인 속 탄산이 오래 보존되며, 기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있다.

### 칙칙폭폭 테마 열차 충북영동국악와인열차

와인을 테마로 한 관광 열차가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엔 '와인'과 '국악'의 만남이다. 이름하여 '충북영동국악와인열차'. 지난 2월 22일 첫운행을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 운행하는 열차는 서울에서 출발해 영동 와이너리와 국악 관광지를 돈다. 열차는 총 여섯 량으로 종전의 와인 트레인을 업그레이드해 국악 공연을 보면서 와인도 음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와인 바를 갖춘 객차는 물론 개인 공간을 넓혀 안락하게 꾸민 특실도 있다.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 브랜드를 첨가한 포트와인 Port Wine

포트와인이 대세다. 포르투갈 오포르토 항구에서 유래한 이 와인은 17세기 최대 와인 소비국이던 영국이 백년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와인 수입이 중단되자 대안으로 만들었다. 포르투갈 도루(Douro)강 상류 알토도루 지역의 적포도와 청포도를 사용한 만큼 수송 과정에서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효 중 브랜드를 첨가한 것. 그 덕분에 미처 알코올로 분해되지 못한 포도의 단맛이 남아 달콤한 것이 특징이며, 주로 식후주로 즐긴다. 루비 포트(Ruby Port), 토니 포트(Tawny Port), 레이트 바틀드 빈티지(LBV; Late Bottled Vintage) 그리고 빈티지 포트(Vintage Port)로 구분한다.







## 레이카비크, 그 생명의 춤과 노래

북극 바다에서 지구상 가장 크고 연약한 생명 하나가 지고 있다. 세계 곳곳의 사람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빙하와 화산섬 아이슬란드에 모여들었다. 수도 레이카비크 거리 위에서 그들의 노래와 춤이 울려 퍼진다. 다른 생명을 위한 무대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손짓하는 공연이었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ARTRAVEL 편집장) 사진 양정훈 외





절반은 화산이, 나머지 절반은 빙하가 채우고 있는 북극해의 섬, 아이슬란드. 아직 탐험이 끝나지 않은 미지의 계곡과 호수가 술하게 남아 있는 땅이다. 북극권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이른 겨울이 오기 전까지 자정이 훌쩍 넘어야 해가 떨어지는 백야(白夜)가 펼쳐진다. 저녁노을과 아침 일출이 연이어 일어나는 신비의 밤을 만끽하려 모인 여



행자들로 가장 북적거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아이슬란드의 비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인간의 삶이 뿌리내리기 훨씬 전부터 북극 바다의 주인이었던 생명체. 그 사연을 전하기 위해 레이카비크(Reykjavik)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낮선 별의 땅**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내려 레이카비크로 이동

하는 동안 창밖에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다른 차원의 시공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광막한 화산의 바위산들 너머 검은 지평선이 놓이고, 군데군데 아직 식지 않은 태초의 열기가 뽀얀 김을 뿜는다. 피오르(fjord)의 현무암 계곡 정상에는 만년설이, 바닥에는 이끼의 초원이 펼쳐지며 한번의 시선에 사계절이 모두 담긴다. 최초의



지구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도 나는 믿겠고, 여기가 실은 지구 밖 다른 세상이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겠다. 여행작가 이름을 달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여행기를 쓰다 보면 글에 최상급 표현을 담은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게 된다. 어떤 절경을 보더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겸손하고 담백하게 여행지를 담아내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더 좋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약속받고 싶다. 그 세상이 우리뿐 아니라 여기고 약한 수 많은 생명에게 역시 더 행복한 미래이길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헛된 꿈일까. 빙하가 흐르는 바다와 오로라 사이를 느리게 오가는 고래들의 생명이 그 멀고 아련한 꿈에 기대어 있다.**

- 1. 서른 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섬이다.
- 2. 링로드에서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 다양한 여행자를 만날 수 있다.
- 3. 현무암 대지로 이루어진 화산섬의 정경은 마치 다른 별에 도착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4. 링로드를 여행하는 배낭여행자들.
- 5. 레이카비크 항구의 풍경.
- 6. 스코가 폭포 폭포 뒤편으로 산책로가 있어 이색적이다.
- 7. 레이카비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할그림스키르카 교회.



그야말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슬란드 풍경 앞에서만큼은 아는 형용사를 죄 갖다 붙이고 싶어진다. 신이 지구를 완성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본 땅이 아이슬란드라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이름의 비밀**

대한민국과 비슷한 면적의 아이슬란드는 영토의 80%가 화산과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고작 몇십 가구가 전부인 작은 마을이 태반이고, 인구 1000명을 넘으면 대도시라 할 수 있다. 에이야프랴라이외퀴들(Eyjafjallajökull)산 등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는 화산만 해도 30개가 넘는다.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은 노르웨이 바이킹이 지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여기에도 꽤나 재미있는 뒷얘기가 따라 붙는다. 바이킹들은 이곳보다 훨씬 북극점에 가깝고 얼음의 불모지로 이루어진 섬 그린란드에는 역설적으로 'GREEN'을, 상대적으로 좀 더 온화한 아이슬란드에는 'ICE'를 붙여 이름 지었다. 대체 왜? 아이슬란드를 너무 아낀 나머지 다른 탐험가들이 이 땅을 오직 얼음뿐인 곳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대신 그린란드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런 발칙한 이름의 땅이 또 있을까 싶다.

**레이카비크와 링로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는 섬 남서부에 위치한다. 공식적으로 전 세계 모든 수도 중 가장 북극에 자리 잡은 도시. 여기까지만 들으면 문명과 동떨어진 이질적이고 다소 낙후된 마을 정경을 연상할 수 있으나, 일찍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영향을 받아 문화와 거리 풍경, 생활수준이 북유럽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랜드마크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교회 중 한 곳(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 수 없으나)인 할그림스키르카(Hallgrímskirkja), 독특한 외관으로 도시와 바다 사이





- 8. 고래 투어 선장이 겁이 많아 사람을 피해 멀어지는 고래들을 한창 찾고 있다.
- 9.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에서 고래 보호를 위해 청년들이 모였다.
- 10. 고래 보호 캠페인 프로젝트 'Meet us, Don't eat us'.
- 11. 북극해에는 북극고래, 긴수염고래, 혹등고래 등이 서식한다.



에 인공의 수평선을 그려내는 하르파(Harpa) 콘서트홀 등이 꼽힌다. 이런 명소들이 주요 가이드북과 관광 정보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곳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뤼이가베귀르(Laugavegur) 거리 한가운데 그라피티 공원에 물표를 던지고 싶다.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세계 곳곳에서 여행 온 음악가, 화가 등 예술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벽에 낙서를 하고, 즉흥 레ιβ 파티를 열고, 밤새 맥주를 마시며 꿈, 청춘, 문학과 문화를 이야기한다. 아이슬란드 국민은 심중팔구 음악가거나 화가거나 작가라는 말이 있다. 백야의 계절, 그라피티 공원에 앉아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실은 음악가, 아니면 화가, 작가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숨은 이야기**

사실 내가 아이슬란드에 온 이유는 단순히 여행 때문은 아니다. 북극의 얼음 바다를 유영하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 고래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아이슬란드는 사실 오래전부터 고래와 연관이 깊다. 화산섬의 특성상 농작물 경작이 어려웠고, 1년의 절반이 넘는 기간 겨울이 이어지면서 섬사람들은 고래 사냥을 통해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후 문화와 교역이 발전하고,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더 이상 고래 사냥이 불필요한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슬란드는 현재 매년 100여 마리 이상의 북극해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왜일까? 환경 전문가들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여행자와 관광객 중심의 고래 고기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레이카비크 거리에서는 고래 고기 전문 레스토랑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눈과 얼음의 북극해를 유영하는 긴수염고래와 북극고래, 범고래와 혹등고래까지. 그들을 만나고 느끼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고래 고기 레스토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래 투어에 있다. 레이카비크에도 많은 고래 투어 기관이 있고, 아

이슬란드 고래 투어의 90%를 소화하고 있는 후사비크(Húsavík)라는 고래 관광 마을도 있다. 고래 투어를 운영하는 많은 에이전시는 고래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후원한다.

**함께 부르는 삶의 노래**

‘우리를 먹지 말고 만나세요(Meet us, Don't eat us)’라는 이름의 포경 및 고래 고기 유통 반대 캠페인을 위해 나쁜 아니라 러시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다. 국제워크캠프라는 이름으로 연중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자원 활동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누구나 지원해 참가할 수 있다). 2주가 넘는 기간 우리는 집 한 채를 빌려 지내면서 매일 아침 고래 탈을 뒤집어쓰고 거리로 나갔다. 여행자 와 관광객, 레이카비크 시민에게 아이슬란드에서 얼마나 많은 포경이 이루어지는지 알리고, 고래 사냥을 멈춰달라는 서명도 받았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들리지 않는 고래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우리는 누구나 더 좋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약속받고 싶다. 그 세상이 우리뿐 아니라 여러고 약한 수많은 생명에게 역시 더 행복한 미래이길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헛된 꿈일까. 지금쯤 아이슬란드 하늘은 짧은 여름과 긴 겨울 사이를 오로라가 있고 있을 것이다. 빙하가 흐르는 바다와 오로라사이를 느리게 오가는 고래들의 생명이 그 멀고 아련한 꿈에 기대어 있다.

**레이카비크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링로드입니다. 섬 전체 외곽을 빙 둘러 하나의 원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는 빙하, 피오르, 화산, 폭포, 태초의 국립공원을 두루 지나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링로드 일주가 부담된다면, 레이카비크 남서쪽으로 골든 서클(Golden Circle)과 노천에 펼쳐지는 지열 온천 블루라군(Blue Lagoon)이 좋은 대안입니다. 혹시 아이슬란드 고래 보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SEEDS Iceland [www.facebook.com/seedsiceland](http://www.facebook.com/seedsiceland)  
 - 국제워크캠프 [www.workcamp.org](http://www.workcamp.org)







## 북향에 터를 잡겠소 심우장

세월이 흘러도 좋은 집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살 것이 아니라 살 곳으로의 집을 고민하는 이들조차 '집은 남향이 좋다'는 것쯤은 오랜 상식으로 알고 있다. 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 속에 광복을 그리던 시인은 조선총독부가 있는 남쪽을 바라보고 살 수 없었다. 만해 한용운이 머물던 집, 심우장이 북향인 이유다.

글 정라희 사진 장병국

### 성북동 좁은 골목을 따라

세상이 좋아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다만, 골목이 많은 길을 찾아갈 때는 조금 긴장해야 한다. 어쩌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큰길 대신 한양 도성 길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택했다. 번지수를 되짚어 바른 길을 가늠하며 좁은 계단을 올랐다. 간간이 눈에 들어오는 색색의 빨래가 유난히 맑은 가을 하늘과 어울려 가슴을 두드린다. 어느 건축가는 서울을 두고 "빨래가 사라진 도시"라 말했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골목마다 빨래가 보였다. 발코니도 마당도 아닌 집 외벽에 걸린 몇 뼘 되지 않는 빨랫줄에 고이 널린 빨래. 골목 어귀 한 벽면에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 시비가 눈에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 걸어 다닐 깊은 골목 사이사이, 누군가 친절하게도 심우장으로 가는 이정표를 그려두었다. 그러고는 이내 '심우장'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면 네 칸, 측면 두 칸 규모의 작은 한옥은 몇 걸음만 내디디면 금세 둘러볼 수 있을 정도다. 앞마당에 서자 멀리 성북동 풍경이 맑은 햇살과 어우러져 그림처럼 빛났다. 이곳은 '님의 침묵'을 쓴 만해 한용운 시인이 입적하기 전 머물던 집이다.







일상의 수행

실내를 충분히 둘러볼 수 있게 해둔 덕분에 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인이 쓰던 방에는 시인이 직접 쓴 글씨와 서판, 시인을 다룬 신문 기사, 옥중 공판 기록 등이 남아 있다. 빛이 들기는 하지만 환한 마당과는 대조적으로 꽤 어두운 내부. 그렇다. 이곳은 북향으로 지은 집이다. 남향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하기에, 시인은 부러 반대편 산비탈 북향 터를 택했다.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사계절 달라지는 기후를 오롯이 감당하며 일상을 지내야 하는 집. 굵은 날, 어두운 방에서 글을 읽고 쓰는 시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별이 아쉬울 추운 겨울에도 냉골에서 지냈을 시인의 언손을 상상했다.

“조선의 땅덩어리가 하나의 감옥인데 어떻게 불 땀 방에서 편히 살겠느냐?”라고 말한 시인의 다짐. 심우장(尋牛莊)이라는 이름은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닫는 열단계의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한 심우도(尋牛圖)에서 유래했다. 시인이 성북동 골짜기에 터를 잡은 때가 1933년. 193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고, 여러 문학가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친일로 변절했다. 광복이 확실치 오리라 희망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하루하루. 암흑 같은 시기, 더욱 짙은 어둠이 내린 시대에서도 시인은 잃어버린 소를 찾는 듯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지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치

시인은 광복을 1년여 앞둔 1944년 6월 29일, 이곳 심우장에서 입적했다.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작고할 때 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도 ‘그날은 오리라’ 하는 마음만은 굳건했으리라. 시인이 심우장에서 생활하던 시절에는 장래에 관한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는 젊은이가 적지 않았다. 시인은 “조금도 실망하지 말게. 우주 만유에는 무상의 법칙이 있네. 절대 진리는 순환함이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일세.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면 자연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일세”라고 말하며 주눅 든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만약 지금도 시인을 만날 수 있다면, 그는 요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무어라 말할 것인가. 심우장에 찾아오는 사람을 항상 환대했다던 후일담에 기대어, 좁은 마루에 앉아 잠시 시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렸다. 마당에는 시인이 생전에 심었다는 향나무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상이 변해도 가치는 남아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 때마침 역사 탐방에 나선 학생 무리가 심우장 주변을 오갔다.







# 핀테크 앱에서 찾은 토막 재테크 습관

금융 환경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했다. 방문부터 대기까지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 결과라도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국 영업사원의 꾀에 속아 엉뚱한 상품을 가입하는 게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처리하기 때문. 이와 함께 재테크도 한손에 들어왔다. 우리가 자주 쓰는 금융 앱을 통해 재테크의 빈틈을 살펴보자.

글 박성준(아주경제 기자)



### 재테크의 해답? 스마트폰에 있다

바야흐로 정보의 홍수 시대다. 서점에 가면 재테크 관련 서적이 넘쳐나고, 포털 사이트만 열면 먼저 나서서 재테크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넘쳐난다. 그럼에도 일반 직장인들은 항상 어떻게 내 돈을 굴려야 할지 고민이 풀리지 않는다. 이는 직장인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일반 직장인은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금융 상품인 주식만 해도 그렇고, 채권과 파생상품에는 웬만한 종잣돈으로는 투자할 엄두조차 못 낸다. 지난해 한때 이슈였던 비트코인도 결국 가장 늦게 들어가 손해를 본 집단은 일반 직장인들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이 성공적인 금융 상품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전문가가 바로 내 옆,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내 휴대폰은 이제 은행이 자투자 상담사다.

### 너 자신을 알라! 너무 간단한 통합 조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재무 현황이나 신용평가를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앱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토스 또는뱅크샐러드는 통합 조회 기능이 강력한 앱이다. 앱을 설치하고 화면에 들어가면 계좌와 카드 조회 메뉴가 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이 신용카드와 같은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각 은행, 증권사, 카드사의 내 정보가 순식간에 모인다. 은행별 앱이 자기 은행의 계좌만 보여줬다면, 토스는 이에 구애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보여준다. 예·적금뿐 아니라 휴면계좌와 연금저축, ISA, 증권사 예수금까지 모든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 때문에 깜빡 잊고 잠자고 있는 내 돈을 발견할 수도 있다. 뱅크샐러드는 나아가 가계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 평소 금융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금융회사 앱이 가득 다운로드된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통합 조회기

능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재테크 이상의 효과가 있다.

앱을 통해 정보 수집뿐 아니라 신용조회와 편리한 투자도 가능하다. 메뉴에 신용관리 카테고리가 이를 통해 손쉽게 나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방법의 신용조회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신용조회만으로 등급이 하락한 시절도 있었다. 곧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하다.

### 여유자금 어디로? 투자처를 알려줘!

이미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똑똑하게 투자처를 찾아 재테크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액의 유휴자금을 앱으로 관리한다면 더욱 빈틈없는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입출금 통장에서 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토스 계좌 만들기를 통해 유휴자금을 넣어두는 온라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토스 계좌는 신한금융투자 CM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자동으로 투자되어 RP(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금리를 이자로 준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금방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앱은 카카오뱅크다. 이 앱은 1금융권의 안정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편리함이 강점이다. 카카오뱅크의 일반 계좌를 만들고 세이프박스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의 중간 성격을 띠는 세이프박스는 수시로 원하는 만큼 저장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일할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고수익 적금 통장만큼은 아니지만 유휴자금을 단기간 보관하기에는 편리성과 접근성 모두를 만족하는 좋은 기능이다.

또 하나는 P2P(개인 대 개인) 분산투자다. P2P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처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기능으로 투자해보길 권한다. 토스는 우량 플랫폼사인 테라펀딩, 8퍼센트와 협약해 부동산 및 개인 투자로 두 가지 P2P 상품을 선보인다. 가장 좋은 기능은 자동분산투자 기능으로, 미리 계획한 예산만 예치금에 넣어두고 건당 투자할 금액과 위험등급, 금리를 미리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적절한 투자가 집행된다. 예치금 이내에서 내가 설정한 위험성을 고려해 적절한 투자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내 자금은 대기하며 다음 물건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니



만큼 분산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자동분산투자 기능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 각 투자 건별로 만기 이전 현금화가 어려우니 계획된 예산과 만기를 체크해야 한다. 자동분산투자 설정에서 만기도 설정할 수 있다.

### 금융 상품 추천 기능만 활용하면 나도 재테크 고수

좋은 금융 상품을 찾기 위해 은행, 증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뱅크샐러드 사이트에 방문하면 은행 예·적금 계좌부터 나에게 최적화된 신용카드까지 찾아준다. 최적화 맞춤 추천 이외에도 최근 베스트 예·적금 및 베스트 신용카드 리스트를 통해 최근 금융 상품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적금과 신용카드를 추천받았으면, 이제 보험과 연금까지 알아보자. '레몬클립'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험 상품을 추천해준다. 보험 상품이야말로 복잡한 상품 특성상 대면 가입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제는 미리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금방 상품의 특징점과 가격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위에서 설명한 개인금융관리, 금융 상품 조회 및 추천 기능은 몇 년 전부터 유명해진 대표적 핀테크 서비스다. 특히 통합 금융 데이터 조회를 통한 최적화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트렌드 기능을 적극 활용해 공부도 하고 스마트한 재테크 생활도 이어가자.





# 서울에서 만난 파리의 밤

## ONE NIGHT IN PARIS

###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조수미 파크콘서트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즈음 날아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따뜻한 음악 선물은 그래서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 초가을 밤,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대한 가을 음악 축제로 온전히 자리매김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

그 두 번째 날에 느낀 감동을 면밀히 기록한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 가을 음악 축제, 올림픽공원을 달구다

지난 9월 8일과 9일 늦은 오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올림픽공원은 인파로 북적였다. 이틀에 걸쳐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가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까닭이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파크콘서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메인 주관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동반자를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초대 한 음악회다. 실내가 아닌 야외 잔디밭에서 즐기는 이 축제는 공제회원은 물론 일반인 관객까지 함께하는 대규모 콘서트로, 이제 가을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디즈니콘서트'와 '조수미 파크콘서트'로 진행,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콘서트와 유아하고 낭만적인 클래식 선율을 들을 수 있는 음악회로 관객을 맞았다. 공제회원의 초대에 각각 7대 1, 9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더니 콘서트의 인기는 늘 변함없이 뜨겁기만 하다.

9월 9일 일요일 '조수미 파크콘서트'가 열리는 날, 88잔디마당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돛자리를 펴거나 바닥에 편안히 앉은 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일행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가로운 주말 오후 시간과 더없이 잘 어울린 풍경. 콘서트 시작은 오후 7시지만 일찌감치 모여들어 여유를 즐기며 사전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즐거움이 날아들었다.

오후 5시가 되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천천히 활짝 열린 88잔디마당 게이트로 입장을 시작했다. 탁 트인 88잔디마당은 그야말로 자유로움 자체였다. 돛자리를 깔고 자유롭게 앉은 사람들, 우아하게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석에서 벌써 건배 중인 사람들 그리고 단정하게 놓인 좌석을 촘촘히 채운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 음악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단연 공연장 오른쪽에 위치한 'The-K ZONE'이다. 교직원공제회 홍보 부스를 시작으로 The-K소피아그린, The-K손해보험,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The-K저축은행 등 각각의 부스가 나란히 들어서 있고, 곧이어 그들의 유쾌한 행사가 시작됐다. 푸짐한 선물과 알찬 정보까지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공제회원이 몰려들자 흥겨운 잔치 마당이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다트 게임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행자와 열띤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상품 종류에 따라 환호성의 크기도 달랐다. 맛있는 간식부터 와인, 생활용품 등을 상품으로 받고는 모두가 싱글벙글이었다.

이때 부스 앞 회원들 사이에서 역시나 줄을 선 채 이벤트 참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문용린 이사장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즐거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문 이사장에게 덕담을 한마디 청하자 "오늘 콘서트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 펼쳐진 잔치 마당입니다. 부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라는 호쾌한 인사가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을밤의 파크콘서트를 즐기러 온 관객의 미소였다.

점차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장내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관객들과 회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 앉기 시작한 것. 아내와 함께 콘서트를 찾았다는 공제회원은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오늘 음악회에 참석했다. 예전에 열린

서울의 초가을 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파리의 밤은 여기에 더해 예술과 예술적 감성이 넘쳐흐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파리의 하늘을 함께 여행해봐요



음악회 야외 공연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어떤 공연이 될지 궁금하다”라며 기대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각 부스에서 받은 선물 한 아름과 초대 받은 꽤 좋은 자리는 공제회원이기 에 누릴 수 있는 큰 덩이다. 오후 7시, 사방에 조금 씩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관객의 박수 속에서 입장했다.

**서울의 밤, 파리의 밤, 행복한 밤**

붉은 장미 코르사주를 단 지휘자 로렌조 파세리 니가 등장했다. 첫 곡으로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 레타 ‘파리인의 생활’이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서 는 오펜바흐가 살던 시대의 파리 전경이 펼쳐지 고, 아름다운 선율과 비주얼은 관객 모두를 그 시 절의 파리로 훌쩍 데리고 갔다. 드디어 몽환적인 파리의 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소프라노 조수미가 등장했 다. 파란색 드레스에 파란 깃털로 머리를 장식한 조수미 씨의 모습에 객석에서 감탄과 박수가 동 시에 터져 나오고, 그녀는 첫 번째 곡 ‘오 파리, 즐 거움이 넘치는 곳’을 열창했다. 과연 카라얀의 편 애를 받은 최고의 소프라노다운 기교에 모든 관 객이 홀린 듯 빠져들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의 초가을 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파리의 밤은 여기에 더해 예술과 예술적 감성이 넘쳐흐릅니 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파리의 하늘을 함께 여행 해봐요.”

조수미 씨의 오프닝 인사에 모두가 다시금 뜨거 운 박수를 보냈다.

아코디언과 함께 이어 부른 노래는 위베르 지로 의 ‘파리의 하늘 아래’. 이어서 테너 장 크리스토프 본이 등장해 모두가 익히 아는 ‘샹젤리제 거리에 서’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관객들이 박자에 맞춰 신나게 박수를 친 것은 물론이다.

1부에서 가장 돋보인 곡은 조수미 씨가 부른 피에 르 루이기의 ‘장밋빛 인생’이었다. 에디트 피아프 에 헌정하는 곡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 곡 은 조수미 씨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노래라 고 붉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조수미 씨의 애절 한 목소리에 모두가 흠뻑 빠져든 모습이었다.

2부에 단연 눈에 띈 것은 슈퍼주니어 려욱과 조수 미 씨가 함께한 컬래버레이션 무대였다. 두 사람 은 콜 포터의 ‘I Love Paris’를 감쪽한 울동과 함께 들려줘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려 욱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오케스트라 반주 에 맞춰 ‘어린왕자’와 ‘소리 소리’를 들려주었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아! 그이었던 가. 언제나 자유롭게’를 마지막으로 오늘 파크콘 서트의 공식 순서는 모두 끝났지만 관객들은 쉽 게 조수미 씨를 놓치지 않았다. 뜨거운 박수로 연 거푸 무대로 불러내 결국 오케스트라는 쇼스타코 비치의 ‘왈츠 2번’을 들려주었고, 조수미 씨는 슈 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비롯해 요한 슈트라우 스의 ‘라데츠키 행진곡’까지 객석에 푸짐한 노래 선물을 안겨주었다. 관객들은 이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더없는 운기와 여 유를 선물해준 ‘조수미 파크콘서트’. 그녀의 노래 를 따라 파리의 밤을 만끽한 관객들의 표정은 행 복 그 자체였다. 공연 내내 웃고 몰입한 옆자리 공 제회원 부부의 표정에서도 무어라 표현할 수 없 는 감흥이 넘쳐흘렀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 어떤 공연과도 비교할 수 없 는 최고의 음악회였어요.”

동의한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MINI INTERVIEW**



**박승진 부장**(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부)

오늘 ‘조수미 파크콘서트’는 교직원 여러분께서 공 제회원이라는 자부심과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도 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1170명 모집에 1만여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 니다. 어렵게 당첨된 만큼 오늘 진행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상하셨기를 바 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준 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님**(서울 서이초), **박철우 님**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조수미 씨의 콘서 트를 보게 되어 정말 기뻐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맑은 하늘 아래에서 노래를 듣고 있으니 지 난여름 더위로 인한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 다. 2학기를 또 열심히 보낼 수 있는 활력과 에너지 도 얻었고요.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이런 이 벤트를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감동적이 며 즐거운 시간이었고, 남편과 함께한 오늘 ‘파리의 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주경 님**(경기 평택 포승중), **장승희 님**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 어가 보는데 평소 좋아하던 조수미 씨 공연에 초대 해주신다고 해서 얼른 신청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공연을 직접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설 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큰 혜택 속에서 공제회원 으로서 소속감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날씨 속에 서 아름다운 음악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행 복했습니다.







## 내 통장을 챙기자, 내 건강을 돌보자

### 2030 셀프케어 프로젝트



#### 정보와 충고가 한자리에

8월 31일 오후 7시, 여의도 The-K타워에 2030 회원들이 모였다. 잘못된 재테크 지식으로 헛돈을 쓰거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정보와 지침을 선물할 강연의 주인공도 함께했다.

<재테크의 여왕>, <월세의 여왕>, <빌딩부자들>, <결혼보다 월세> 등을 펴내 재테크의 여왕으로 불리는 성선화 기자가 먼저 활기차게 무대에 올랐다.

“오늘은 아끼고 절약하는 절약테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테크는 크게 삼 단계로 나뉘요. 아끼고 절약하기, 투자 파트, 나중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단계별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아끼고 절약하는 걸 첫 단계로 꼽습니다.”

성선화 기자는 작년에 멘토로 참가한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참가자들이 6개월 동안 1000만원의 종잣돈을 모으는 도전을 그린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젊은 여성 3명의 멘토를 맡아 6개월 동안 1000만원 모으기가 정말 가능한지 도전했다는 것이다. 참석자 모두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6개월 동안 1000만원이라니! 과연 가능할까?

‘건강’과 ‘자산’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심사다. 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가 재테크 전문가로 유명한 성선화 기자와 피부 전문의로 명성이 자자한 함익병 원장을 초대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100명 모집 공고에 신청자 수는 무려 2000여 명,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2030 교직원들은 불타는 금요일 저녁임에도 강연장을 빼곡히 메웠다. 그 뜨거운 강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본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 습관이 재테크를 성공으로 이끈다

성선화 기자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단톡방을 만들어 멘티들에게 매일 쓴 돈의 영수증을 올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매일 가계부를 쓰고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주식 계좌도 만들게 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안 들어 잘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 단톡방에 영수증을 올렸죠. 그러자 다들 따라서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신 분 중 배우자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부가 서로 어디에 지출하는지 모르면 재테크가 안 됩니다. 서로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관리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출을 하지 않는 ‘무지출 데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성선화 기자는 절약테크는 결국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테크에서 가장 쉬운 것이 절약이라고 했다.

“투자와 절약테크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절약하는 건 내 습관이고, 이런 것이 몸에 익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가계부를 쓰기 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 명세서 6개월분을 분석해 지출 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 네 가지를 뽑는 것이다.







지출 구멍을 찾아 분석하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나오는데, 여기서 변동 지출을 줄이는 게 포인트다.

“술, 영화, 운동을 비롯해 자질구레한 생활용품 지출을 인식하고 줄여보세요. 제 경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뒤 지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성선화 기자가 스크린에 띄운 사진이며 자료를 열심히 사진 찍고 메모하는 모습이 매우 진지했다.

성선화 기자는 이어서 모든 지출은 반드시 할인 받는다는 전제하에 카드를 사용하고, 월급 통장을 분산해 은행에서 각종 혜택을 챙기고 적금을 쪼개 드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결국 성선화 기자가 맡은 2명의 대학생과 1명의 직장인은 6개월 동안 1000만원을 모으는데 성공했다고.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자금 운용을 굉장히 잘 하는 기관이고, 연금이 중요한 시대에 그만큼 높은 이율을 주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교직원

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역시 운영 주체가 교직원공제회이니만큼 잘 활용해보십시오.” 강연 내내 웃음과 진지함이 교차한 첫 번째 강연이 큰 박수 속에서 끝났다.

**피부, 제대로만 알면 확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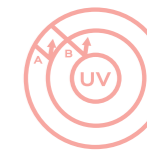
두 번째 강연자는 함익병 원장이었다. 훗칠한 모습에 모두가 연예인이라도 만난 듯 반가움의 환성을 질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함익병 원장은 참석자 모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과 당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2030세대 여자들이 신앙처럼 믿고 있던 피부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세수하고 피부가 땅기면 지성 피부일까요? 건성 피부일까요?” “건성요!” “아닙니다. 지성 피부입니다.” “목욕할 때 때타월을 안 쓰는 분이 있다면 손들어보세요. 딱 한 사람만 제대로 목욕하고 계시군요.” “제가 대머리일까요? 아닐까요? 전 사실 대머리입니다.” “정말?” (객석에서 나온 소리에 모두가 빵 터졌다) “네, 정말입니다.(웃음)”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드름도, 피부색도, 기미도, 대머리도 모두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쉽 없이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시술을 받아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타고난 것이니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함 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면 피부와 관련한 고민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세간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를 맹신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남성은 물론 여성 대머리가 늘어나는 요즘 특히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먼저 대머리 자가 진단법. 한쪽 손으로는 앞머리를, 한쪽 손으로는 뒷머리를 동시에 쥐어 그 굵기를 비교했을 때 굵기가 확연히 다르면, 즉 앞머리가 더 가늘면 대머리라는 것이다. 함 원장은



남자는 처방을 받아 탈모 치료약을 먹고, 여자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는 약을 먹으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에 모두가 또 바쁘게 메모를 했다.

“목욕할 때 때타월로 피부를 박박 문지르죠. 그러고는 시원하다고 하고요.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은 피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생기는데, 이를 제거하면 피부는 빨리 회복하려고 또 각질을 생성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할 때는 손으로만 문질러도 충분합니다.”

함 원장은 오래전 추석과 설에만 목욕하던 시절의 목욕법을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다며, 피부를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정말 날 감쪽할 사이에 흘러갔다. 미모와 직결되는 얘기, 평소 관심 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니 아무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결국 지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해 끝난 강연에 참석자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 이날 자리를 마련해준 교직원공제회와 함익병 원장에게 큰 감사를 표시했다.

이날 강연은 예상 시간을 훨씬 넘어 끝났지만 참석자들은 돌아가기 전까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강연을 준비해주신 교직원공제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MINI INTERVIEW**



**신혜선 과장**(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오늘 강연은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20~30대 공제회원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험으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미래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건강과 재테크를 주제로 잡았고, 강사진 역시 젊은 교직원들이 쉽게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관심이 향후 자신의 미래에도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보험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생각보다 큰 호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임소희 님**(간호사) · **박진영 님**(간호사)

오늘 강연을 정말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강사님들 질문이나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아주 즐겁게 경청했어요. 사실 저희 둘 다 원래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재테크 관련 강연을 듣고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익병 원장님은 정말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웃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피부 상식을 정말 많이 깨닫고 갑니다. 매우 유익했고 무엇보다 실생활에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지은 님**(서울 원효초 행정실) · **안지원 님**

저는 평소에 재테크와 피부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어요. 동생은 직장이 여의도와 가깝고 또 함익병 원장님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해보면 적이 없는 재테크 관련 강연을 듣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에는 워낙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깜짝 놀랐고요. 특히 목욕법요. 교직원공제회 이벤트는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하겠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 공제회 광주·전북 회원 예식장 새단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전북 회원 예식장이 지난 여름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예식장 이용 시 보다 품격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웨딩홀, 로

비, 신부대기실 등의 인테리어 전반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단장했다. 광주 회원 예식장(사진)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교통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800석 규모의 연회장과 400대 동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주 회원 예식장은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하며 650석 규모의 연회장을 갖췄다. 그동안 호텔 출신 조리장을 초빙해 내놓은 피로 연 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어들였다.

교직원공제회 회원 예식장은 전국 5개 공제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본인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결혼 시 예식장 시설과 폐백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he-K호텔서울·경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도 공제회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예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회원 예식장 위치>

지역	위치	문의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2(부산역 앞)	051) 464-6767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고속터미널 맞은편)	062) 352-1331
대전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홈플러스 맞은편)	042) 488-1111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수원시청역 인근)	031) 224-203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로 (롯데백화점 맞은편)	063) 253-9790

#### 뮤지컬 <라이온킹> 대구 공연 초청 10월 1~18일 응모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뮤지컬 전관 행사가 11월 16일 대구에서 펼쳐진다. 이번에 선정된 공연은 다양한 소품과 분장으로 재현한 동물과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유명한 <라이온킹>이다. 인터내셔널 투어의 국내 첫 공연으로 원어 그대로의 무대를 선보인다. 참여를 원하는 공제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하면 된다.



- ▶ 공연 일시: 11월 16일 오후 7시 30분
- ▶ 공연 장소: 대구 계명아트센터
- ▶ 응모 대상: 공제회 회원
- ▶ 응모 기간: 10월 1~18일
- ▶ 당첨 발표: 10월 22일 홈페이지 게시

#### 목돈·퇴직생활급여 급여율(이율)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월 1일부터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의 급여율을 연 2.7%(세전)로 0.3%p 상향 조정한다. 퇴직생활급여 중에서는 부가금형 및 적립형만 인상되며, 확정연금형·기간형·종신형·종신연금형은 종전과 같이 2.99%(세전)로 유지된다.

#### The-K 은빛동행 '충주 깊은산속 가을 소풍' 개최 특별회원 초청행사... 10월 8~17일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회원 초청 행사인 The-K 은빛동행 '충주 깊은산속 가을 소풍'을 10월 29~30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충주의 '깊은산속 웅달샘'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비우고 채우며, 더 깊어가는 우리 청춘'을 주제로 가을 숲에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일 대전역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 예정이며, 대전역까지는 개별적으로 집결해야 한다.

- ▶ 행사 일시: 1차 10월 29일, 2차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 응모 대상: 공제회 특별회원
- ▶ 초청 인원: 차수당 60명(동반 1인 포함)
- ▶ 응모 기간: 10월 8~17일
- ▶ 응모 방법: 홈페이지, 콜센터(1577-3400), 공제회 시도지부 내방
- ▶ 당첨 발표: 10월 19일 홈페이지 게시 및 당첨자에게 문자 발송

#### '대한민국 문해의 달' 특별상 시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9월 12일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에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수상자를 시상했다. 문해의 달 선포식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성인 문해교육의 확대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9월 개최된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문해교육을 후원해오고 있다.



### The-K Family

#### The-K예다함상조, 창립 9주년 기념 '999 이벤트' 진행



제 ▶99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증정 ▶999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다함은 홈페이지(yedaham.co.k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웰빙지수 3년 연속 1위

한편, The-K예다함상조는 지난 8월 21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인증 수여식에서 3년 연속 장례 서비스 부문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소비자웰빙지수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의 5개 부문을 평가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웰빙 만족도를 측정하는 인증제다. 예다함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됐다.

☎ 문의 1566-6644

#### The-K호텔서울, 2018 가을 와인페어 개최

The-K호텔서울은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The-K호텔서울 분수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2018 가을 와인페어(2018 Autumn Wine Fair)'를 펼친다. 이번 와인페어는 평소 시중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리미엄 와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와인 100여 종과 프리미엄 맥주를 시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리다. 야외 카페에서는 와인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스페셜 메뉴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와인페어에서 구입한 와인은 레스토랑 우엘로에서 코르키지 비용 없이 마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와인 페어를 방문한 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 나누르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증정하고, 응모권 추첨을 통해 객실 이용권, 뷔페 이용권, 와인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입장료는 2만원이며 공제회원, K멤버십 회원, 서초구민은 20% 할인된다.

와인페어 2인 초대권을 포함해 일반실 1박, 모



☎ 문의 02-571-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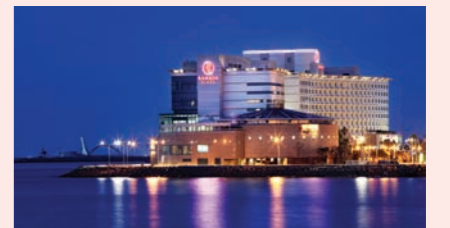
#### The-K호텔경주, 10월 프로모션 풍성



The-K호텔경주는 가을을 맞아 경주로 여행을 준비하는 공제회원을 위해 '메이플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 스탠다드 1박, 조식 2인 구성으로 가격은 11만5000원부터다. 또한 가을맞이 신메뉴도 출시했다. 한식당은 추어탕·더덕구이 정식·새우탕 등을, 커피숍 아이리스는 연잎차, 건도라지차, 감잎차 등을 판매한다.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304개 객실을 보유한 특급 호텔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형 온천 시설 '스파월드'로 유명하다.

☎ 문의 054-745-8100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가을 패키지 출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제주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여행객을 위한 '익사이팅 어텀(exciting autumn)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1은 객실 1박, 관광지 이용권 2매, 조식 뷔페 2인 ▶패키지2는 객실 1박, 관광지 이용권 3매, 조식 뷔페 3인(성인 2인, 소인 1인)으로 구성했다. 패키지에 포함된 이용권은 세계 최대 착시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 또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다이나믹 메이즈' 중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패키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판매한다.

☎ 문의 064-729-8100



<The-K 매거진> 10월 즉석당첨 이벤트

#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나도 당첨되게 해주련

이벤트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이뤄진대요~  
매일 응모하고, 푸짐한 선물 받아주세요!



100개



문화상품권  
1만원권(모바일)

100개



던킨도너츠  
6개팩(모바일)

200개



CU편의점 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0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11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행위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뜨거운 안녕

강원 삼척은 먼 길이었습니니다. 동트자마자 새벽같이 출발해 차로 4시간을 꼬박 달려 겨우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첩첩산중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 작은 냇가와 언덕 그리고 골다리를 건너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야 보이는 곳. 학교 앞 기차길이 자리하는 곳.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강원 삼척 도계의 작은 마을예요. 그렇게 소달초와의 꿈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달초는 아담한 학교입니다. 학교 앞에서 뒤에서 산이 보입니다. 교실로 들어서려면 학교 정문에서도 오솔길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참으로 따뜻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날까요? 학교가 품고 있는 온기일까요, 아이들의 웃음일까요, 선생님들의 마음일까요.

소달초에는 전교생 11명이 오순도순 아옹다옹 지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교사 수도 적습니다. 4명의 선생님과 2명의 행정실 선생님 온 가족입니다. 그중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함께하는 엄기섭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편집팀이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셨죠. 정말 반가웠습니다. 바로 급식실로 안내해주셨거든요. 하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의 모든 선생님, 전교생이 점심을 함께 한 적이 있을까요? 급식실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 냄새, 선생님들의 온기 어린 시선, 아이들의 와글와글한 수다 소리... 그렇게 정감 가는 점심 식사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그 시간의 냄새, 온기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장수풍뎡이와 함께한 과학 시간도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었죠. 물론 회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풍뎡이를 손으로 옮기며 좋아라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회진이는 맑은 아이입니다. 회진이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맑은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절로 콧노래를 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모기 물린 자국을 함께 세며 서로 내가 더 많이 물렸다면 자랑 아닌 자랑도 나누었죠. 자신과 헤어스타일이 똑 닮았다며 얼마나 친근하게 대해주던지. 아이의 천진함에 덩달아 웃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조잘거림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소달초 선생님들이 대단해(!) 보일 정도였지요. 촬영이 끝나고 기념으로 전교생 단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각각 표정을 지었죠.

또다시 서울로 먼 여행을 떠나는 편집팀을 위해, 한사코 사양해도 학교 텃밭의 가지를 따서 한아름 건네주신 소달초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뜨거운 안녕을 전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에도 삼척에 참 잘 왔다며 웃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이 그립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계절, 그날, 그 시간의 사람들을요.

그렇게 2018년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길었던, 어느 해보다 뜨겁던 날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